경남교육 아이 배려의 거리 2m 좋아

2020

학생과목선택권확대를 위한

교사역량강화연수

철학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목 차

⦿ 고등학교 철학 교과 핵심 역량과 철학 수업 사례 나눔 … 3
지혜인(중동고등학교 교사)

⦿ 교실탐구공동체를 위한 철학교육 …… 25
권희정(상명대부속여자고등학교 교사)

⦿ 철학교과 내용체계와 성취기준 …… 59
윤상철(경희여자고등학교)

고등학교 철학 교과 핵심 역량과 철학 수업 사례 나눔

지혜인 중동고등학교 교사

Ⅰ 목차

A. 고등학교 철학 교과의 핵심 역량
  1. 교과 성격 및 핵심 역량
  2. 교과 목표
B. 철학, 그리고 철학 분과에 대한 이해
C. 철학 수업 사례 나눔 및 실습
  1. 수업 사례 소개
    1) 철학 원전을 활용하여 형이상학 수업하기
    2) 철학 원전을 활용하여 형이상학 + 윤리학 수업하기
    3)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을 활용하여 인식론 수업하기
  2. 나만의 철학 수업 계획서 작성해보기

Ⅱ 철학 교과에 대한 이해

A-1. 철학 교과 성격 및 핵심 역량

- 앎의 양과 질이 삶의 모양과 수준을 규정한다. 즉, '인간은 자신이 아는 만큼 산다.'라는 명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철학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철학함'의 근본 전제이다.
- 여기에서 '앎'이란 일상적 상식이나 습관 또는 학교나 각종 매체에서 전달하는 지식, 정보, 기술, 의견, 가치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인간 스스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신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 철학함의 핵심적인 과제는 모든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 지식의 근거를 추적하고 지식과 삶을 관련짓는 것이다. 나아가 철학함은 신체, 욕망, 감성, 정서, 이성을 포함한 모든 인간 능력을 총체적으로 발휘하여, 자기 삶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자기의 앎을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이해하는 인간적 활동이다.

A-1. 철학 교과 성격 및 핵심 역량

- 첫째, **비판적 사고 역량**은 문제 상황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근거를 해명하며, 참·거짓, 옳음·그름, 좋음·나쁨, 아름다움·추함 등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자신의 문제의식에 적합한 결론을 도출 하는 능력이다.
- 둘째, **의사소통 역량**은 타인과의 대화에서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바꿔 가면서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담화 행위의 능력이다.
- 셋째, **논변 역량**은 문제 사태에 대해 타인과 더불어 합리적 근거를 추구하면서 가능한 한 관련자 모두가 찬성하는 합의점을 창출하는 능력이다.
- 넷째, **가치 정립 역량**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창출의 과정에서 자신과 관련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가치를 제시하여 공동으로 추구할 지향점을 설정하는 능력이다.
- 다섯째, **타인과의 공감 및 연대 역량**은 사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실존을 감안하여 상호 간의 전(全) 인격적 이해를 고려하는 능력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고등학교 철학 교과 핵심 역량	일반화된 지식 (철학 교과서-천재교육- 소단원명)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논증과 토론 등의 의사소통 방법을 통하여 합당한 근거와 보편적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자기주장을 정립할 수 있는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타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교과 목표)	I-1. 배움이 인간에게 주는 능력은 무엇인가? I-2.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I-2.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는가?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고등학교 철학 교과 핵심 역량	일반화된 지식 (철학 교과서-천재교육- 소단원명)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고등학교 철학은 고등학생들이 지금까지 교과별로 흩어져 있는 지식들의 근거와 자기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교과 성격) 문제 상황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근거를 해명하며, 참·거짓, 옳음·그름, 좋음·나쁨, 아름다움·추함 등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자신의 문제의식에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는 비판적 사고 역량	I-3. 철학은 자유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III-1. 생명은 물질 현상인가 비물질 현상인가? IV-2. 옳지 않은 규칙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고등학교 철학 교과 핵심 역량	일반화된 지식 (철학 교과서-천재교육- 소단원명)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창출의 과정에서 자신과 관련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가치를 제시하여 공동으로 추구할 지향점을 설정하는 가치 정립 역량	II-1. 인간의 존재를 몸이나 마음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 있는가? III-1. '나'는 물질인가? III-3. 과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고등학교 철학 교과 핵심 역량	일반화된 지식 (철학 교과서-천재교육- 소단원명)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자아 정체성과 시민적 연대의 관점에서 타인의 삶을 이해하여 공동의 삶을 살아가는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자기 교육의 과정이라는 성격도 지닌다." (교과 성격)	II-1.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적절한가? II-3. 혼자 사는 것만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IV-3. 우리는 왜 아름답지 않은 것보다 아름다운 것을 더 좋아하는가? IV-3. 좋은 삶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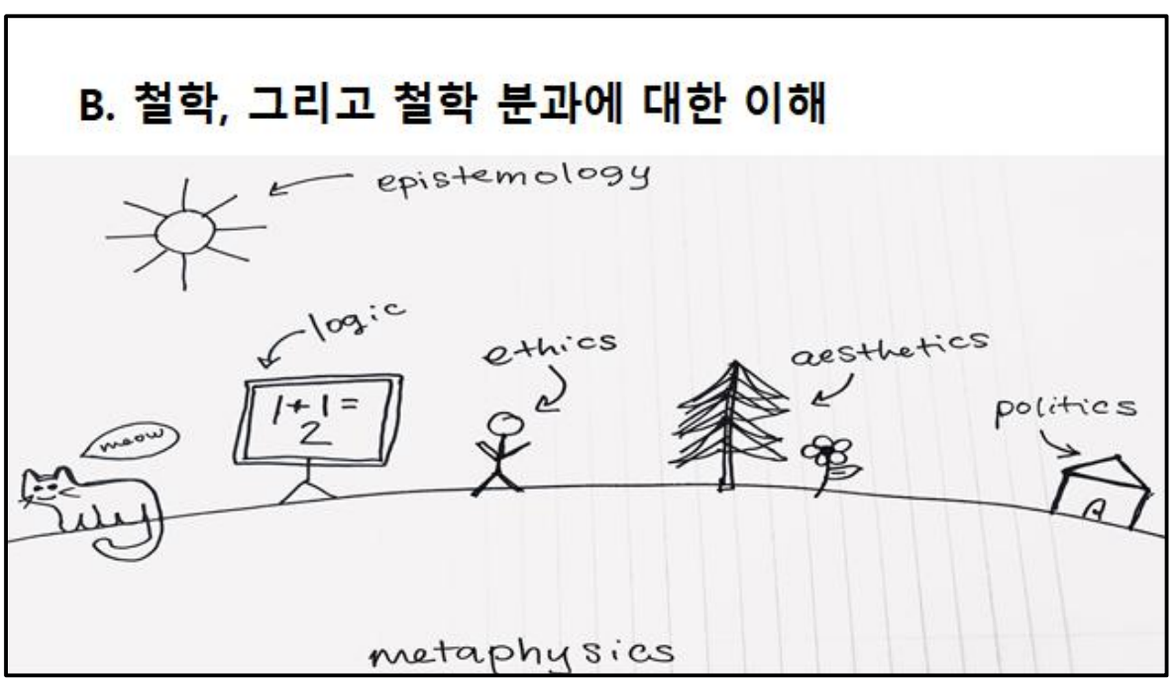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고등학교 철학 교과 핵심 역량	일반화된 지식 (철학 교과서-천재교육- 소단원명)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타인과의 대화에서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바꿔 가면서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담화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역량 문제 사태에 대해 타인과 더불어 합리적 근거를 추구하면서 가능한 한 관련자 모두가 찬성하는 합의점을 창출하는 논변 역량	II-2.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II-2. 타인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II-3. 타인은 내 삶의 방해물인가, 자기실현의 조건인가?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고등학교 철학 교과 핵심 역량	일반화된 지식 (철학 교과서-천재교육- 소단원명)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사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실존을 감안하여 상호 간의 전(全) 인격적 이해를 고려하는 타인과의 공감 및 연대 역량	III-2.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 사회의 조건은 무엇일까? III-3. 민족은 무엇이고, 민족의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IV-2. 인권을 무시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IV-2. 진정한 평화는 어떤 상태인가?

A-2. 철학 교과가 목표하는 것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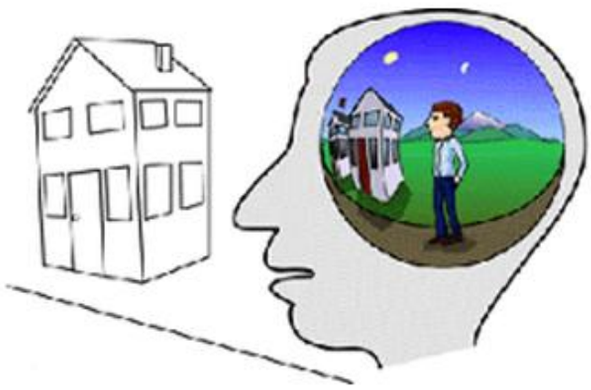
- 첫째, 교과 지식과 관련된 문제를 쟁점으로 정립하고, 그 쟁점들이 실제 삶의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판단한다.
  - 철학적 문제와 삶의 문제 연관지어보기
- 둘째, 쟁점에 대한 비판적·창의적 탐구 능력을 기른다.
  - 문제에 대해 탐구해 보기
- 셋째, 논증적으로 정리된 결과를 자신의 의견으로 표명하고 그 의견을 논술로 기술하며 타인들과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체득한다.
  - 표현하고 논의하기

III. 철학 분과에 대한 이해



B. 철학, 그리고 철학 분과에 대한 이해

- Epistemology
- 인식론
- (E) The study of the nature, sources, and validity of knowledge.



B. 철학, 그리고 철학 분과에 대한 이해

- Logic
- 논리학
- (C) The formal systematic study of the principles of valid inference and correct reasoning.

P	Q	$\neg P$	$P \rightarrow Q$	$\neg P \wedge (P \rightarrow Q)$
T	T	F	T	F
T	F	F	F	F
F	T	T	T	T
F	F	T	T	T

B. 철학, 그리고 철학 분과에 대한 이해

- Metaphysics
- 형이상학
- (B) The theory of first principles or, as synonymous with ontology, the theory of being as such.

B. 철학, 그리고 철학 분과에 대한 이해

- Aesthetics
- 미학
- (D) A branch of philosophy dealing with the nature of beauty, art, and taste, and with the creation and appreciation of beauty.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Wanderer above the Sea of Fog)
by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

B. 철학, 그리고 철학 분과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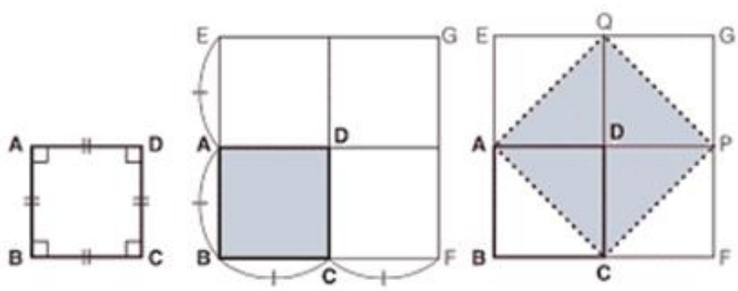
- Ethics
- 윤리학
- (A) A branch of philosophy that involves systematizing, defending, and recommending concepts of right and wrong behavior.

Ⅳ. 철학 수업 사례 나눔

읽기 자료 1

C. 철학 수업 사례 나눔

- 1. 수업 사례 소개
  1) 철학 원전을 활용하여 형이상학 수업하기
- https://www.youtube.com/watch?v=g2g_5vMHMVI



(그림 1) (그림 2) (그림 3)

C. 철학 수업 사례 나눔

▶ 1. 수업 사례 소개

1) 철학 원전을 활용하여 형이상학 수업하기

1. 이 글은 도대체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증명 과정을 그림을 그려가며 3~4단계로 정리해보고, 정리한 증명 과정을 학급 친구들에게 차례대로 설명해주세요.

2. 텍스트 중간 중간 빈 칸이 있습니다. 이 칸에는 모두 같은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단어를 맞춰주세요. (알파벳 R 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3. 소크라테스는 메논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어떻게 탐구해야 할지 고민해보고, 그 결과를 발표해봅시다.

SOCRATES: And this knowledge which he now has must he not either have acquired or always possessed?

2. 텍스트 중간 중간 빈 칸이 있습니다. 이 칸에는 모두 같은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단어를 맞춰주세요. (알파벳 R 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 recollection → 회상, 추억, 기억, 생각
  "to recover or recall knowledge of, bring back to the mind or memory" (1550)
  re- "again" + colligere "gather"

3. 소크라테스는 메논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어떻게 탐구해야 할지 고민해보고, 그 결과를 발표해봅시다.

SOCRATES: And this knowledge which he now has must he not either have acquired or always possessed?

소크라테스 : 그렇다면 이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가 언젠가 획득했던 것이거나, 아니면 언제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겠나? (85d)

소크라테스 : 그렇다면 이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가 언젠가 획득했던 것이거나,
아니면 언제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겠나?

메논 :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 1) 언제나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언제나 알았을 걸세.
2) 하지만 언젠가 획득했다면, 그는 적어도 이승에서 획득하지는 않았을 걸세.
아니면 이 아이에게 누가 기하학 하는 걸 가르친 적이 있던가?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메논 : 적어도 제가 아는 바로는 누구도 이 아이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 이승에서 획득하여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다른 어떤 때에 가지고 있었고, 배웠었다는 것이 이제 분명하지 않은가?

메논 : 그렇게 보입니다.

소크라테스 : 그렇다면 적어도 이 아이가 인식(지식)을 획득한 것은 그가 인간이 아니었을 때가 아닌가?

[쉬어가기] 마차의 비유 (Chariot Allegory)

- https://www.youtube.com/watch?v=VcmQUJkubno
- 플라톤 "파이드로스"
  - 마부 : 우리 영혼을 진리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별적 능력
  - 검은 말 : 비이성적인 열정, 식욕 등 쾌락 위주의 욕망, 복종하는 특성
  - 흰 말 : 합리적인 열정(절제, 겸손 등), 도덕적인 충동(의로운 분노 등), 대담한 특성

읽기 자료 2

C. 철학 수업 사례 나눔

▶ 1. 수업 사례 소개

2) 철학 원전을 활용하여 형이상학 + 윤리학 수업하기

읽기 자료 3

C. 철학 수업 사례 나눔

▶ 1. 수업 사례 소개

3)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을 활용하여 인식론 수업하기

우리는 일상생활이나 학문 활동에서 '진리' 또는 '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어 "그 이론은 진리이다"라고 말하거나 "그 주장은 참이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진리'라고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에는 대응설, 정합설, 실용설이 있다.

대응설은 어떤 판단이 사실과 일치할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가서 보라"라는 말에는 이러한 대응설의 관점이 잘 나타나 있다. 감각을 사용하여 확인했을 때, 그 말이 사실과 일치하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대응설은 일상생활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때 흔히 취하고 있는 관점으로 우리가 판단과 사실의 일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여긴다. 우리는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지각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책상이 네모 모양이라고 할 때 감각을 통해 지각된 '네모 모양'이라는 표상은 책상이 지니고 있는 객관적 성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C. 철학 수업 사례 나눔

▶ 1. 수업 사례 소개
3)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을 활용하여 인식론 수업하기

정합설은 어떤 판단이 기존의 지식 체계에 부합할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진리로 간주하는 지식 체계가 이미 존재하며, 그것에 판단이나 주장이 들어맞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체의 운동에 관한 그 주장은 뉴턴의 역학의 법칙에 어긋나니까 거짓이다"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뉴턴의 역학의 법칙을 진리로 받아들여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진위를 판별한 것이다.

C. 철학 수업 사례 나눔

▶ 1. 수업 사례 소개
3)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을 활용하여 인식론 수업하기

실용설은 어떤 판단이 유용한 결과를 낳을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어떤 판단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 보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거나 유용하다면 그 판단은 참이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은 창의력을 기른다'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학습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보았다고 하자. 만약 그러한 학습 방법이 실제로 창의력을 기르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았다면 그 판단은 참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 된다. 이러한 실용설은 새로운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때 결과의 유용성을 중시한다. (2012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국어> 영역 비문학 기출 지문)

C. 철학 수업 사례 나눔

▶ [문제] 위 글에서 아래의 ⓐ와 ⓑ에 각각 관련되는 것은?

∘ 17세기에 스테노는 관찰을 통해 상어의 이빨과 설석(舌石)이라는 화석이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사실을 근거로 그는 화석이 유기체에서 기원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

∘ 20세기 초에 베게너는 지질학적 조사 결과를 근거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가 과거에 한 대륙이었다가 나중에 분리되었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당시의 지질학자들은 대륙은 이동하지 않는다는 통설을 근거로 그의 주장이 틀렸다는 ⓑ판단을 내렸다.

ⓐ	대응설 ( )	정합설 ( )	실용설 ( )
ⓑ	대응설 ( )	정합설 ( )	실용설 ( )

C. 철학 수업 사례 나눔

▶ [생각 펼치기] 아래 표 <여러 가지 종류의 앎>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 한 개와 가장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각각 한 개씩 선택한 다음, 그 이유를 글로 정리해 봅시다.

Ⓐ 물은 100℃에서 끓는다.
Ⓑ 나는 우주인이다.
Ⓒ 100원짜리 동전을 던졌을 때, 이순신이 새겨진 면이 나올 확률은 50%이다.
Ⓓ 신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 송도에는 해상케이블카가 있다.
Ⓕ 모든 인간은 죽는다.

C. 철학 수업 사례 나눔

내 생각에 위의 표 <여러 가지 종류의 앎 >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 )이다.

그리고 가장 확실하지 않은 것은 ( )이다. 먼저 가장 확실한 것을 고를 때

고려했던 점들은 다음과 같다. :

[읽기 자료 1] 플라톤「메논」(82 a ~ 85d)

•MENO: Yes, Socrates; but what do you mean by saying that we do not learn, and that what we call learning is only a process of recollection? Can you teach me how this is?
•SOCRATES: I told you, Meno, just now that you were a rogue, and now you ask whether I can teach you, when I am saying that there is no teaching, but only recollection; and thus you imagine that you will involve me in a contradiction.
•MENO: Indeed, Socrates, I protest that I had no such intention. I only asked the question from habit; but if you can prove to me that what you say is true, I wish that you would.
•SOCRATES: It will be no easy matter, but I will try to please you to the utmost of my power. Suppose that you call one of your numerous attendants, that I may demonstrate on him.
•MENO: Certainly. Come hither, boy.
•SOCRATES: He is Greek, and speaks Greek, does he not?
•MENO: Yes, indeed; he was born in the house.
•SOCRATES: Attend now to the questions which I ask him, and observe whether he learns of me or only remembers.
•MENO: I will.
•SOCRATES: Tell me, boy, do you know that a figure like this is a square?
•BOY: I do.
•SOCRATES: And you know that a square figure has these four lines equal?
•BOY: Certainly.
•SOCRATES: And these lines which I have drawn through the middle of the square are also equal?
•BOY: Yes.
•SOCRATES: A square may be of any size?
•BOY: Certainly.
•SOCRATES: And if one side of the figure be of two feet, and the other side be of two feet, how much will the whole be? Let me explain: if in one direction the space was of two feet, and in the other direction of one foot, the whole would be of two feet taken once?
•BOY: Yes.
•SOCRATES: But since this side is also of two feet, there are twice two feet?
•BOY: There are.
•SOCRATES: Then the square is of twice two feet?
•BOY: Yes.
•SOCRATES: And how many are twice two feet? count and tell me.
•BOY: Four, Socrates.
•SOCRATES: And might there not be another square twice as large as this, and having like this the lines equal?
•BOY: Yes.
•SOCRATES: And of how many feet will that be?
•BOY: Of eight feet.
•SOCRATES: And now try and tell me the length of the line which forms the side of that double square: this is two feet—what will that be?
•BOY: Clearly, Socrates, it will be double.
•SOCRATES: Do you observe, Meno, that I am not teaching the boy anything, but only asking him questions; and now he fancies that he knows how long a line is necessary in order to

produce a figure of eight square feet; does he not?
•MENO: Yes.
•SOCRATES: And does he really know?
•MENO: Certainly not.
•SOCRATES: He only guesses that because the square is double, the line is double.
•MENO: True.
•SOCRATES: Observe him while he recalls the steps in regular order. (To the Boy:) Tell me, boy, do you assert that a double space comes from a double line? Remember that I am not speaking of an oblong, but of a figure equal every way, and twice the size of this—that is to say of eight feet; and I want to know whether you still say that a double square comes from double line?
•BOY: Yes.
•SOCRATES: But does not this line become doubled if we add another such line here?
•BOY: Certainly.
•SOCRATES: And four such lines will make a space containing eight feet?
•BOY: Yes.
•SOCRATES: Let us describe such a figure: Would you not say that this is the figure of eight feet?
•BOY: Yes.
•SOCRATES: And are there not these four divisions in the figure, each of which is equal to the figure of four feet?
•BOY: True.
•SOCRATES: And is not that four times four?
•BOY: Certainly.
•SOCRATES: And four times is not double?
•BOY: No, indeed.
•SOCRATES: But how much?
•BOY: Four times as much.
•SOCRATES: Therefore the double line, boy, has given a space, not twice, but four times as much.
•BOY: True.
•SOCRATES: Four times four are sixteen—are they not?
•BOY: Yes.
•SOCRATES: What line would give you a space of eight feet, as this gives one of sixteen feet; —do you see?
•BOY: Yes.
•SOCRATES: And the space of four feet is made from this half line?
•BOY: Yes.
•SOCRATES: Good; and is not a space of eight feet twice the size of this, and half the size of the other?
•BOY: Certainly.
•SOCRATES: Such a space, then, will be made out of a line greater than this one, and less than that one?
•BOY: Yes; I think so.
•SOCRATES: Very good; I like to hear you say what you think. And now tell me, is not this a line of two feet and that of four?
•BOY: Yes.

•SOCRATES: Then the line which forms the side of eight feet ought to be more than this line of two feet, and less than the other of four feet?
•BOY: It ought.
•SOCRATES: Try and see if you can tell me how much it will be.
•BOY: Three feet.
•SOCRATES: Then if we add a half to this line of two, that will be the line of three. Here are two and there is one; and on the other side, here are two also and there is one: and that makes the figure of which you speak?
•BOY: Yes.
•SOCRATES: But if there are three feet this way and three feet that way, the whole space will be three times three feet?
•BOY: That is evident.
•SOCRATES: And how much are three times three feet?
•BOY: Nine.
•SOCRATES: And how much is the double of four?
•BOY: Eight.
•SOCRATES: Then the figure of eight is not made out of a line of three?
•BOY: No.
•SOCRATES: But from what line?—tell me exactly; and if you would rather not reckon, try and show me the line.
•BOY: Indeed, Socrates, I do not know.
•SOCRATES: Do you see, Meno, what advances he has made in his power of recollection? He did not know at first, and he does not know now, what is the side of a figure of eight feet: but then he thought that he knew, and answered confidently as if he knew, and had no difficulty; now he has a difficulty, and neither knows nor fancies that he knows.
•MENO: True.
•SOCRATES: Is he not better off in knowing his ignorance?
•MENO: I think that he is.
•SOCRATES: If we have made him doubt, and given him the 'torpedo's shock,' have we done him any harm?
•MENO: I think not.
•SOCRATES: We have certainly, as would seem, assisted him in some degree to the discovery of the truth; and now he will wish to remedy his ignorance, but then he would have been ready to tell all the world again and again that the double space should have a double side.
•MENO: True.
•SOCRATES: But do you suppose that he would ever have enquired into or learned what he fancied that he knew, though he was really ignorant of it, until he had fallen into perplexity under the idea that he did not know, and had desired to know?
•MENO: I think not, Socrates.
•SOCRATES: Then he was the better for the torpedo's touch?
•MENO: I think so.
•SOCRATES: Mark now the farther development. I shall only ask him, and not teach him, and he shall share the enquiry with me: and do you watch and see if you find me telling or explaining anything to him, instead of eliciting his opinion. Tell me, boy, is not this a square of four feet which I have drawn?
•BOY: Yes.
•SOCRATES: And now I add another square equal to the former one?

•BOY: Yes.
•SOCRATES: And a third, which is equal to either of them?
•BOY: Yes.
•SOCRATES: Suppose that we fill up the vacant corner?
•BOY: Very good.
•SOCRATES: Here, then, there are four equal spaces?
•BOY: Yes.
•SOCRATES: And how many times larger is this space than this other?
•BOY: Four times.
•SOCRATES: But it ought to have been twice only, as you will remember.
•BOY: True.
•SOCRATES: And does not this line, reaching from corner to corner, bisect each of these spaces?
•BOY: Yes.
•SOCRATES: And are there not here four equal lines which contain this space?
•BOY: There are.
•SOCRATES: Look and see how much this space is.
•BOY: I do not understand.
•SOCRATES: Has not each interior line cut off half of the four spaces?
•BOY: Yes.
•SOCRATES: And how many spaces are there in this section?
•BOY: Four.
•SOCRATES: And how many in this?
•BOY: Two.
•SOCRATES: And four is how many times two?
•BOY: Twice.
•SOCRATES: And this space is of how many feet?
•BOY: Of eight feet.
•SOCRATES: And from what line do you get this figure?
•BOY: From this.
•SOCRATES: That is, from the line which extends from corner to corner of the figure of four feet?
•BOY: Yes.
•SOCRATES: And that is the line which the learned call the diagonal. And if this is the proper name, then you, Meno's slave, are prepared to affirm that the double space is the square of the diagonal?
•BOY: Certainly, Socrates.
•SOCRATES: What do you say of him, Meno? Were not all these answers given out of his own head?
•MENO: Yes, they were all his own.
•SOCRATES: And yet, as we were just now saying, he did not know?
•MENO: True.
•SOCRATES: But still he had in him those notions of his—had he not?
•MENO: Yes.
•SOCRATES: Then he who does not know may still have true notions of that which he does not know?
•MENO: He has.

•SOCRATES: And at present these notions have just been stirred up in him, as in a dream; but if he were frequently asked the same questions, in different forms, he would know as well as any one at last?
•MENO: I dare say.
•SOCRATES: Without any one teaching him he will recover his knowledge for himself, if he is only asked questions?
•MENO: Yes.

[읽기 자료 2] 플라톤「국가」(10권)

육체를 떠난 에르(Er)의 영혼은 많은 다른 영혼들과 함께 길을 떠나 이상한 곳에 도착하였다. 그곳은 하늘과 땅에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이었는데 그 구멍에는 재판관들이 앉아서 생전의 행적에 따라 의로운 사람은 하늘로 올려 보내고 부정한 자는 땅 아래로 내려 보내지고 있었다. 에르가 도착하자 재판관은 그를 향해 "너는 사후세계의 일을 인간들에게 알리는 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명심하여 잘 보고 듣고 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그들의 말에 따르면 살아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을 10배로 보상을 받고,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10배로 벌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에르는 한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세 명의 운명의 여신, 즉 라케시스, 클로토, 아트로포스가 앉아 있는 곳으로 갔다. 여기서 에르 일행은 제비뽑기로 정한 순서대로 다음의 생(生)을 선택하게 되었다.

제비뽑기 결과 첫 번째로 다음 생에서의 삶을 급하게 고른 돈 밝히기로 유명한 사람은 귀족으로 태어나 부유한 삶을 누리는 참주의 신분을 선택하였는데, 너무 성급하게 고른 나머지 자기가 제 자식을 고기로 삼아 잡아먹게 되는 운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통탄한다. 그 옆에 있던 남성 타미라스는 밤꾀꼬리의 삶을 선택하는데 이것은 노래 솜씨가 빼어나기로 유명했던 그의 전생의 삶이 반영되어 있는 선택이었다. 한편, 전설적인 여자 사냥꾼이었던 아탈란타는 다음 생애에서 이름을 날리게 되는 남자 운동선수의 삶을 고른다. 이어서 트로이의 목마를 만들었던 에페이오스는 다음 생애에서 여자로 태어나 장인(master)이 되는 장면을 선택하며,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았던 오디세우스는 전세에서 갖가지 괴로움을 겪은 까닭에 모든 명예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끝까지 남겨놓은 평범한 인간의 수수한 생활을 선택하게 된다.

[읽기 자료 3]

우리는 일상생활이나 학문 활동에서 '진리' 또는 '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어 "그 이론은 진리이다"라고 말하거나 "그 주장은 참이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진리'라고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에는 대응설, 정합설, 실용설이 있다.

대응설은 어떤 판단이 사실과 일치할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가서 보라"라는 말에는 이러한 대응설의 관점이 잘 나타나 있다. 감각을 사용하여 확인했을 때, 그 말이 사실과 일치하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대응설은 일상생활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때 흔히 취하고 있는 관점으로 우리가 판단과 사실의 일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여긴다. 우리는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지각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책상이 네모 모양이라고 할 때 감각을 통해 지각된 '네모 모양'이라는 표상은 책상이 지니고 있는 객관적 성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합설은 어떤 판단이 기존의 지식 체계에 부합할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진리로 간주하는 지식 체계가 이미 존재하며, 그것에 판단이나 주장이 들어맞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체의 운동에 관한 그 주장은 뉴턴의 역학의 법칙에 어긋나니까 거짓이다"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뉴턴의 역학의 법칙을 진리로 받아들여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진위를 판별한 것이다.

실용설은 어떤 판단이 유용한 결과를 낳을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어떤 판단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 보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거나 유용하다면 그 판단은 참이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은 창의력을 기른다'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학습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보았다고 하자. 만약 그러한 학습 방법이 실제로 창의력을 기르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았다면 그 판단은 참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 된다. 이러한 실용설은 새로운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때 결과의 유용성을 중시한다.

(2012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국어〉 영역 비문학 기출 지문)

토의 주제

* 내가 철학 수업을 한다면 무엇을 중점으로 수업 계획을 세울 것인가?
  (내용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을 어떻게 조화롭게 구성할 것인가?)
* 철학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고려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참고 문헌

- 플라톤, ≪국가≫, 박종현 옮김(2008, 개정증보판), 파주:서광사.
- 플라톤, ≪메논≫, 이상인 옮김(2009), 서울:이제이북스.
- 홍윤기 외(2018), 「고등학교 철학 지도서」, 천재교과서.

교실탐구공동체를 위한 철학교육

권희정 상명대부속여자고등학교 교사

Ⅰ 교실탐구공동체 철학교육과 2015개정 교육과정의 6대 핵심역량

교실탐구공동체는 미국의 어린이철학연구소(IAPC)에서 개발한 철학교육 모형이다. 모든 어린이(유치원부터 고3까지)는 스스로 철학하는 존재임을 전제로 철학적 사고의 과정을 스스로 습득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학교육프로그램이다. 탐구공동체 토론 수업은 학생들의 교실을 협동하는 사고 공동체로 전제한다. 교실에서 학생들은 수업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종결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토론을 만들어간다. 스스로 책을 읽고(지적 체험), 스스로 질문하고(토론 쟁점), 토론하고(상호 경청과 논리적 입장 전개),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자기 수정과 새로운 정립)해나가는 수업이다. 이를 위해 교재의 내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토론 쟁점을 만들며, 토론 진행과 사고의 나눔, 결론의 확인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따라 스스로 탐구하는 공동체 수업이다. 교실탐구공동체가 순항하려면 교사는 학생들의 자발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교사는 전통적인 지도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한 명의 토론자로 참여하고, 때로는 안내자, 촉진자, 질문자로서의 역할을 다양하게 수행한다. 학생들은 주입된 가치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자신들의 삶의 고민으로 받아 안으며, 탐구의 과정에서 얻은 문제의식과 가치를 내면화한다. 이를 통해 자기 질문에 대한 자기 답변을 얻음으로써 근본적으로 검토된 일관된 입장을 습득한다. 필자는 미국의 교육, 문화적 토양에서 개발된 탐구공동체 모형을 한국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독서토론을 통한 철학교육을 24년째 진행해 왔는데 그 수업 전략과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수업 전략:

① 교재를 읽고 토론거리를 질문함으로써 주체적으로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철학적 문제를 설정한다.
② 토론 질문과 발표, 상호 의견 공유의 과정에서 이유와 사례를 들어 말함으로써 논리적 사고법을 익힌다.
③ 타인의 견해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예의를 갖추어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배려적 사고법을 익힌다.
④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견해를 세우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반성적 태도를 기른다.
⑤ 토론이 끝나고 난 후,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가 뿐만 아니라 무엇이 더 궁금해졌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자기 사고의 변화 과정을 되돌아본다.
⑥ 토론 후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고 친구들과 공유하여 공동의 성장을 확인한다.

2. 모형의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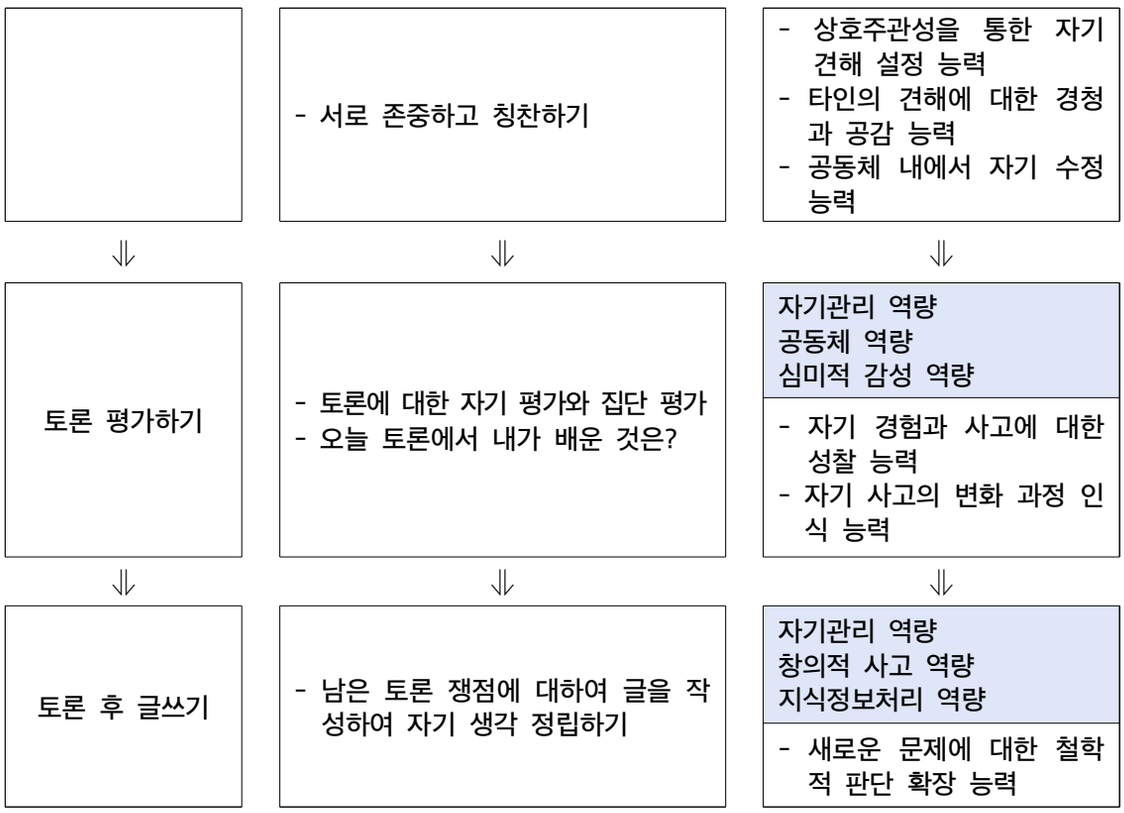
① 탐구공동체 독서토론 수업의 사전 준비 : 질문 훈련 수업, 토론의 방법과 과정을 익히는 수업
② 독서토론을 위한 준비 작업 : 독서법 익힘 수업, 독서토론을 위한 역할자 배정 및 사전 교육
③ **실제 독서토론** : 학생들의 토론 질문 제기, 사회자의 진행, 칠판서기-체크서기-기록서기의 기록 작업, 배경 지식 또는 작가에 대한 조사 발표, 자신들이 던진 질문을 가지고 순서를 만들어 토론 진행
④ 토론 후 글쓰기 : 핵심 질문에 대하여 토론 후 글쓰기, 인터넷 카페에 올린 후 상호 공유

이 수업을 위해 약 4개월에 걸쳐, 학생들이 스스로 책을 읽도록 지도했고, 질문법을 익혔으며, 다양한 토론방식에 적응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자신들의 공동 노력으로 토론을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부터 도왔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자신의 새로운 가치관을 글로 작성하여 이론화의 기초를 다지도록 하였다. 교사는 각 단계를 지켜보고 메모를 남겨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주었다.

필자가 철학교과 수업을 통해 추구해온 것은 학생들이 철학적 지식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 보다는 철학적 사유의 즐거움과 습관을 갖추는 일이었다. 학생들이 타인의(부모든, 교사든, 동료들이든, TV든) 기준에 의해 받아들여온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의 질문을 찾아내고 토론 속에서 스스로 교정하는 자기 수정적 사고의 습득이다. 실제로 학생들은 교실탐구공동체 토론수업에서 추상적인 수준의 거대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구체적인 생활 전반에 걸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생생하게 느끼고 고민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단지 지식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윤리적 가치관이나 취향, 감성의 계발 등에 걸친 폭넓은 영역을 동시에 포괄하였다.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는 토론 쟁점을 확인해보면, 교사가 기대한 대부분의 질문들이 등장함을 알 수 있다. 토론을 형성하는 공간 내의 모든 존재들에게 서로의 교사가 되어주며 서로의 학생이 되어주는 그런 탐구의 공동체가 되어 갔다. 탐구공동체로 성장하는 교실 속에서 지식 중심의 수업보다 더 역동적으로 철학적·윤리적 가치와 대안을 내면화함을 확인하였다.

바로 이 점 덕분에,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천명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실탐구공동체의 지향이 일치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목표로 하여 6가지 교육 핵심 역량을 제시하였다. 지식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이 그것이다. 앞서 살펴본 교실탐구공동체 수업과 2015개정 교육과정의 6대 역량과의 관계를 개괄해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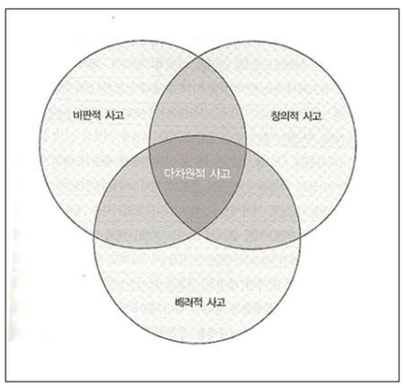
단계	교수·학습 활동	2015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책 읽고 질문하기	- 토론을 위한 책읽기 훈련 - 책과 내가 만나기 - 스스로 질문하기 - 자발적 토론 준비(역할자 맡기)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 문제 상황 공감 능력 - 주체적 문제인식 능력 - 도덕적 문제 설정 능력
⇓	⇓	⇓
토론하기	- 공동 협력으로 토론의 흐름과 진행 만들어가기 - 공동체 내에서 질문하고 주장하고 경청하기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 서로 존중하고 칭찬하기
- 상호주관성을 통한 자기 견해 설정 능력
- 타인의 견해에 대한 경청과 공감 능력
- 공동체 내에서 자기 수정 능력
토론 평가하기
- 토론에 대한 자기 평가와 집단 평가
- 오늘 토론에서 내가 배운 것은?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 자기 경험과 사고에 대한 성찰 능력
- 자기 사고의 변화 과정 인식 능력
토론 후 글쓰기
- 남은 토론 쟁점에 대하여 글을 작성하여 자기 생각 정립하기
자기관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 새로운 문제에 대한 철학적 판단 확장 능력

Ⅱ 다차원적 사고를 위한 교육

가. 다차원적 사고 교육[1)]

그러면 학생들이 획득해야 하는 '철학적 사고'의 실체는 무엇인가? 최근의 연구 경향은 '비판적, 창의력, 배려적 사고'를 통합적으로 습득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학교 교육에서 어느 하나만 강조하고 나머지를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학생들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과정에서 책을 읽고 세상을 배우며 내면에 스스로의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데에 이 세 가지는 자신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중심 기둥이 되어야 한다.



[그림 40] 다차원적 사고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관계

우선, '비판적 사고'는 실제 생활이나 학습에서 얻은 지식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사고이다. 우리들은 흔히 상대방의 입장을 살피지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왜 그런가'를 더 중히 여긴다.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제시되었어도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하다면 아무리 나와 같은 주장을 전개해도(내 편이어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에 답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논리적 사고다.

또한 비판적 사고는 답답하게 규칙과 원리만 따지는 꽉 막힌 사고가 아니다. 특수한 한계 상황이나 사회적인 배경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판단하는 사고이다. 사회적 맥락과 상황적 맥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고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과정에서 자신의 오류를 발견했을 때 스스로 수정하여 더 나은 판단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고이다. 비판적 사고는 타인을 공격하기 위한 사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창의적 사고'는 독창적 아이디어가 담긴 근거나 주장으로 드러난다. 흔히 엉뚱하거나 튀는 생각쯤으로 여기고 있지만, 창의성은 오히려 원칙에 대한 철저한 이해에서 시작한다. 코페르니쿠스는 천동설의 원리를 정확히 알았기에 지동설을 발견했고, 중국의 노반은 풀잎의 가장자리를 살펴 톱을 제작하였다. 떨어지는 사과를 본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뉴턴만이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을 우주에 적용했기에 만유인력을 알아냈다. 새로운 것을 알아내는 힘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철저하게 따져 다른 영역으로 전이할 때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창의성의 핵심이다.

또한 창의적 사고는 사태를 총체적으로 보면서 새로운 면을 발견한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데 주저 없이 도전한다. 그로 인해 현실에 적용

1) 매튜 립맨(2003), 박진환.김혜숙 역, 『고차적 사고력 교육』, 인간사랑 참조.

가능한 결과물을 도출해 낼 때 창의적이라 할 수 있다. 엉뚱한 사고는 때로 창의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기괴함이 아니라 창의적인 결과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출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배려적 사고'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정서적이고 가치부여적이며 규범적인 행동을 할 때 보여지는 사고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관심을 갖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배려의 시작이다. 아이가 아플 때 엄마는 무엇이든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된다. 관심과 염려로부터 아픈 원인을 찾고 고통을 공유하며 어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배려적 사고는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아니다. 엄마가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것은 아이를 배려하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판단하고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다음 단계의 것을 미리 생각해 관리해주고 칭찬해 준다. 배려적 사고는 이러한 행동이 종합적으로 드러날 때 타인에게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

나. 비판적 사고 교육

수업에서 이러한 사고를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는가? 우선은 읽기와 관련하여 비판적 사고의 읽기 훈련법을 사용해 볼 수 있다. 앞서도 밝혔듯이 논리적 사고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이다. 근거가 설득력이 없을 때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적절하고 사실에 맞고 충분한 논거를 제시할수록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받아들일 만한 가능성이 높다. 논증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곧 근거(전제)로부터 결론(주장)이 어떻게 이끌어내졌는가를 따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 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입장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어린 아이라면 애정에 호소하며 생떼를 쓸 것이고, 권력을 쥔 자라면 힘으로 눌러 억지 찬성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성에 호소하는 방법이 가장 객관적이며 누구나 수긍하고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이다. 인간의 이성은 누군가의 제안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왜 그래야 하는지'를 살피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간에 자주 갈등을 빚는 두발 규정을 떠올려 보면, "머리를 단정히 하라"는 교사의 요구에 대해 학생들은 즉각적으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토론을 시켜 보면, "어떤 머리가 단정한 것인가", "단정한 머리를 누가 규정하는 것인가", "단정한 머리를 해야만 공부가 되는가", "머리 모양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도 되지 않는가", "머리 모양이 학생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 머리 모양의 자유를 가지면 안되는가" 등등 온갖 사항을 살피려고 한다. 머리 모양 하나에서도 다양한 관련 논거가 제시되어야 학생들은 비로소 그 결론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

을 이해할 때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교칙을 준수하려고 한다.

따라서 논리적 설득력은 이성으로 반응하게 하는 핵심 관건이 된다. 인간 사회의 다양한 현실 쟁점을 두고 학생의 입장을 물을 때 논리성이 주된 평가 요목인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감성적 접근이나 수사적 표현의 정도 차이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논리적이지 못한 말이나 글은 아무리 훌륭한 치장을 해도 억지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비논리적 내용은 왠만한 문장력이 아니고는 훌륭한 치장을 하기도 어렵다). 학생들이 평소에 논리적으로(비판적으로) 사고해야 책을 읽을 때도 논리적인 면을 따져서 읽게 될 것이다.

다음은 미국의 비판적 사고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학생들에게 평소에 꾸준히 독서와 병행하여 훈련하기를 권장하는 읽기의 9가지 핵심 요소이다.[2] 교사는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질문들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도록 유도하면 좋겠다. 물론, 처음부터 9가지를 다 살피는 것은 어려우므로 3개씩 반복 훈련하면서 점차 확대시켜 활용해 나가는 것이 좋다.

- 쟁점 : 이 글은 지금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인가?
- 주장 : 글쓴이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 근거 :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 목적 : 글쓴이는 무엇을 위해 이 글을 썼는가?
- 개념 : 이 글의 핵심 개념은 무엇인가?
- 정보 : 이 글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는 무엇인가?
- 관점 : 글쓴이는 어떤 관점에서(정치적/경제적/제도적/사회적/심리학적/교육적 등) 이 글을 접근하고 있는가?
- 함축 : 이 글의 숨은 결론은 무엇인가?
- 맥락 : 이 글은 어떤 사회적 배경을 깔고 쓰여졌는가?

다. 창의적 사고 교육

창의적인 사고는 학생들이 아는 것이 많을수록 자신만의 카드를 꺼낼 수 있기 때문에 독창적인 생각을 담을 수 있다. 그래서 독서야 말로 가장 창의성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학생들은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과 인생을 접하고 자신의 기존 생각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자신을 넘어서려 하고, 새롭게 알게 된 작가의 문제의식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실험해 보려고 한다. 당연한 지식이 아니라 엉뚱해 보이더라도 재미를 느끼며 해결해 보려고

2) 김영정(2004), 비판적 사고와 학술적 글쓰기, 비판적 사고 교육 하계 연수, 성대 강연 참조.

도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외면적으로 파악하고자 할 때 흔히 “입장을 선택하고 이유를 밝히라”,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술하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에 맞는 대안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상도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서울 학생들의 문화생활에 관한 질문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부산시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은 어떠한가를 묻는다면 부산의 학생들은 자신과 주변 학생들의 상황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실상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면,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정확히 찾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 배가 아플 때 아무 약이나 주면 안되고, 배탈인지 맹장염인지 변비인지에 따라 처방약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니 창의적이라는 것은 곧 대상을 제대로 알고 그에 대한 자신만의 개성있는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원리를 알아야 그에 맞는 응용을 할 수 있으니 책을 제대로 읽어서 깊이 있게 이해할 때 창의적 사고가 가능하다. 톱을 발견한 중국의 노반은 풀잎에 베인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야들야들한 풀잎이 이토록 강한 힘을 내는 것은 풀잎 가장자리의 모양과 구조 때문임을 알게 된 때문이다. 원리를 깨우친 후 그것을 다른 영역에 적용할 때 창의성이 시작된다. 학생들에게 독서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을 넘어 원리를 이해하고 현실을 구체적으로 진단하며 그것을 해결하려는 데로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라. 배려적 사고 교육

소통수업에서 배려적 사고를 기르려면 책을 읽고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훈련시킬 수 있다. 독후 활동으로 친구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에 대한 반응을 얻을 수 있어서 논리를 보충하거나 문제점을 깨닫는 데 유리하다. 입장과 근거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반응해주는 사람을 통해 다시금 자신의 생각을 다듬어 나갈 수 있다. 자기 생각의 한계를 스스로 깨닫기는 어려운 법이지만,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면 시행착오를 단시간에 압축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속에서의 자기수정적 사고는 비판적 사고와 배려적 사고가 서로 연결되는 고리를 포착하게 한다.

또한 토론을 많이 하다보면 나중에는 객관적 사고의 흐름을 학생의 내면에서 스스로 진행시킬 수 있다. A라고 말하면 무엇이 문제가 될 지, A 다음에 B로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나가야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될 지를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미리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서

로의 근거에 관심을 기울이며 토론 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다. 독후 활동으로서의 토론이 배려적인 사고를 기르는 데 적합한 활동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친구와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면 무엇보다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 에머슨이 말한 것처럼 “같은 책을 읽었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다.” 학생들은 혼자 읽다가 느낀 의문점들을 친구들과 공유하거나 벅찬 감동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지적 사고 작용을 확인하고 감성의 변화를 공유하는 것은 헤어스타일이나 치마 길이로 맺어진 친구 관계와는 차원이 다르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책 이야기를 나눌 친구를 선물하는 것은 게임 친구나 채팅 친구를 맺게 방치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정서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다.

Ⅲ 질문 없이 토론 없다.

학생들이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게 하기 위해 요구되는 많은 기술 중에서 질문을 만들어 묻고 대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질문은 지식을 이끌어내고 확장하며 각자의 지식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논리를 탐색하게 한다. 교사든 학생이든 질문을 잘 하려면 먼저 ‘질문 그 자체’에 대한 분석과 수련이 필요하다.

1. ‘닫힌 질문’에서 ‘열린 질문’으로[3)]
   1) 일반적 질문, 탐구적 질문, 수사적 질문
      가) 일반적 질문 : 정보나 지식, 탐구방법 등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하는 질문
      나) 탐구적 질문 : 상대방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고, 가능한 많은 답을 유도하기 위해 하는 질문
      다) 수사적 질문 : 질문자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응답자가 답을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하는 질문
   2)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
      가) 열린 질문 : 대답에 논쟁의 여지가 많아 답을 확정할 수 없고, 질문 자체가 더욱 많은 질문을 낳게 하며 어떠한 대답도 충분히 만족할 수 없으리라 생각되는 질문.
      나) 닫힌 질문 : 정해진 답이 있으며 정확한 답을 말하면 질문을 종료시키는 질문. 또는 탐구를 확장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탐구를 중단시키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 지는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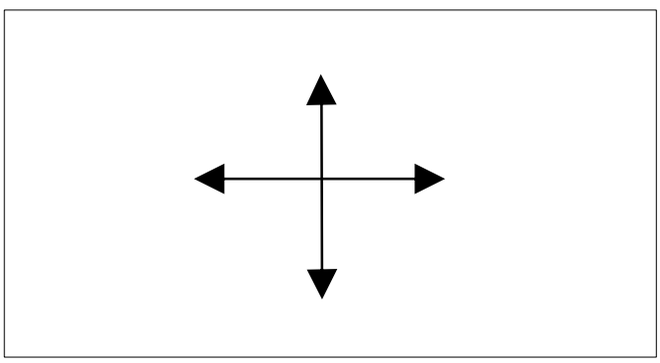
3) Lipman, M., Splitter, L. J., Sharp, A. M.(1995), *Teaching for better thinking*, ACER. 참조.

3) 절차적 질문과 내용적 질문

가) 절차적 질문 : 탐구 주제에 도달하기 위해 밟아가야 하는 논증 단계 과정 중에 위치하는 질문

나) 내용적 질문 : 논증 과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기되는 질문

4) 질문의 접합



하나의 대답이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따져 묻는 습관을 들이려면 (나)의 '열린 절차적 질문'의 상시적 활용을 끊임없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질문하지 않는 교사가 질문하는 학생을 만들 수는 없다. 설명위주의 수업 방식에서도, 학생에게 발문을 계획할 때에도, 학생 상호간의 토론을 유도할 때에도 '열린 절차적 질문'을 골고루 사용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소크라테스에게서 배우는 철학적 질문 유형

1) 명료화를 위한 질문

~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인가요?
당신은 지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에 대한 예를 들어 주세요.
누구 다른 사람이 수정이를 위한 예를 들어 줄 수 있겠어요?

2) 견해와 관점에 대한 질문

이 주제에 관해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당신의 견해가 다른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수미와 은희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거죠?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누군가가 당신한테 이런 주장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주제를 접근해 볼 수 있겠죠?

3) 근거를 탐색하는 질문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사례(또는 반례)를 들어들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당신은 저 사람의 근거에 동의하나요?
지금 제시된 근거는 충분한가요?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나요?
그 자료들이 신뢰할 만한 증거가 되나요?

4) 전제를 탐색하는 질문

그는 지금 어떤 가정을 하고 있을까요?
당신은 그런 가정을 확실하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왜 그 사람은 그런 가정을 하고 있을까?
그 질문에는 숨겨진 전제들이 있지 않을까?

5) 함축과 결론을 탐색하는 질문

당신이 말한 것들에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나요?
A를 비윤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면, B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런 행동의 결과는 어떤 식으로 일어날까요?
A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런 결론이 논리적 비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6) 질문에 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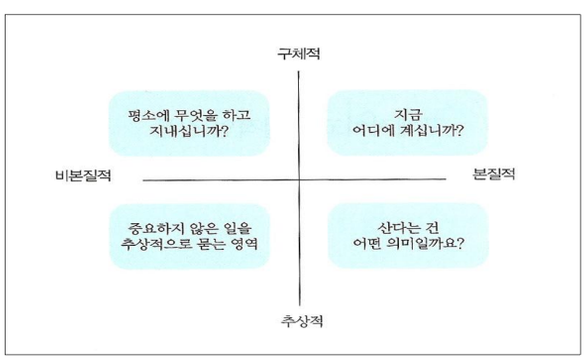
그것이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이 이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 질문의 전제가 무엇일까요?
이 주제에 대해 또 다른 측면에서 다루어 볼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그 질문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찾아가는데 가까워지고 있는 건가요?

3. 교사의 발문,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으로!”[4)]

교사의 발문은 토론의 성패를 좌우한다. 프랑스의 대학입학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의 철학논술문제는 우리들이 보기에 매우 당혹스럽다. “평등하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의미인가?”, “예술작품과 보통의 평범한 물품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참여와 자유는 반드시 대립되는 것인가” 등의 질문을 주고 4시간 동안 글을 쓰게 하는 시험이다. 제시문이 나오고 논제의 질문을 잘게 잘라서 내는 한국의 ‘통합교과형’ 논술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이론’을 평가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바칼로레아식 논술 문제가 훨씬 논술시험의 본질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학생들에게 논술의 핵심 논제에 접근하기 위해 “평등이란 무엇이냐”, “예술이란 무엇이냐”를 초반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묻기란 매우 곤란하다. 구체적인 상황맥락을 스스로 파악하는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인 개념 중심의 접근법은 자유로운 사고 유발에 장애가 된다. 평소 토론 수업이 익숙하지 않은 탓도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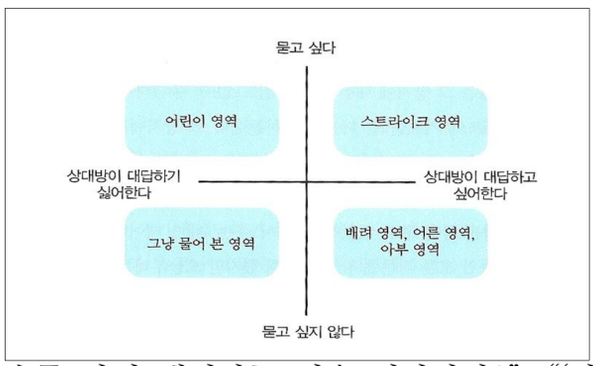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일까. 사이토 다카시가 제안했던 ‘구체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질문’이 교사가 던져야 할 발문이다.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사셨나요?” 이런 추상적 질문에 선뜻 대답할 사람은 별로 없다. “자신 있게 다룰 수 있는 도구 하나만 말해 주세요.” 이런 질문은 답변자가 인생에서 어디에 열정을 쏟았는지를 알려준다. 테니스 선수라면 ‘라켓’일 테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면 ‘사전’쯤 되지 않을까. 구체적이면서 본질적인 질문은 저수지의 깊은 곳을 손쉽게 드러내어 준다.



흥미와 답변을 고려하는 질문도 중요하다. ‘묻고 싶다/않다’와 ‘대답하고 싶어한다/싫어한다’를 이용하여 4사분면을 나눈다. 나는 묻고 싶지만 상대방이 대답하기 싫다면? 바로 ‘어린이 영역’의 질문이다. 끊임없이 질문을 해대는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질문하니까. 반면 나는 묻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이 대답하고 싶어 할 때도 있다. 바로 ‘어른 영역’ 또는 ‘아부 영역’의 질문이다. 그런데, 실제 교실 상황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린이 영역의 질문을, 학생들이 ‘어른 영역’의 질문을 던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교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루한 질문만 던지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고역이다. ‘묻고 싶고 대답하고 싶은’ 질문은 서로의 호감을 높이고 답변자에게도 성찰의 기회를 준다.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논어)나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들이 나눈 대화(대화편)가 그 예이다. 성

4) 사이토 다카시(2003),『질문의 힘』, 루비박스



숙한 질문은 생각의 길을 만들어 철학적 사고를 완성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평등'이나 '예술'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조건적인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발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드컵 주전선수와 10분도 안 뛴 선수를 같이 대접하는 것은 정당한가?", "'마빡이'는 예술인가 아닌가?", "감독교사가 있는 선택적 자율학습은 자율인가 아닌가?" 등으로 버전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자기 삶의 문제나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질문일 때 학생들은 생각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기에 좋다.

4. 교사의 효과적인 질문을 위한 구체적 지침[5)]

교사는 학생들의 동기 유발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질문을 던지지만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통상적인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 한 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하거나 복잡하고 애매하거나 이중적인 질문의 사용
- 교사가 기대하는 대답만 수용
-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
- 질문을 하고 난 다음 교사 자신이 대답
- 질문을 벌을 주는데 활용
- 질문이나 학생의 반응을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주의적 분산과 시간 낭비
- 공부를 제일 잘하거나 답변을 잘할 학생에게만 질문
- 동일한 유형의 질문만 제기
- 위협적인 방식으로 질문을 제기
-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허용치 않음
- 잘못된 대답을 교정해 주지 않음
- 학생의 대답을 무시하거나 학생의 대답을 잘 활용하지 못함
- 대답의 함의를 파악하지 못함

이상과 같은 문제점과 오류를 극복하고 질문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다음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다

- 수업목표에 적합한 질문의 유형을 사전에 계획하라.
- 수업목표에 적합한 질문을 간결, 명료하고 핵심에 맞게 제시하라.
- 학생들이 생각할 시간, 즉 대기시간 1을 3초 정도 제공하라.

5) 조영남(2004), 교수-학습 전략으로서의 질문, 『교육적 질문하기』(2006)에서 재인용.

- 질문을 다시 하거나 탐사 질문을 하기 전에 대기시간 2, 즉 학생이 대답을 마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라.
- 질문과 대답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
- 질문하기 전에 응답자를 미리 지명하지 말라.
- 학급 구성원들의 능력 수준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질문을 하라.
- 학생들이 긴장을 유지하도록 하라.
- 한번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너무 빨리 질문하지 말라.
- 학생이 반응을 수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하는 질문을 하라.
- 너무 많은 질문과 단답형 질문을 피하라.
- 학생의 반응을 주의 깊게 들어라.
- 교사가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특정 학생 중심의 질문을 피하라.
- 학급 전체에 공평하게 질문하고, 손을 들게 해서 지명하되 손을 들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어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을 참여시켜라.
-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라. 특히 여학생이 답을 하지 못했을 경우, 남학생에게 기회를 넘겨주지 말고 그 여학생이 답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단서를 제공해 주라. 또한 남학생에게 여학생의 답을 보완하도록 하지 말고 전체 학생에게 다시 질문하라.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대기시간을 주고 남녀 학생을 동일하게 지명하라.

Ⅳ 독서 토론의 사전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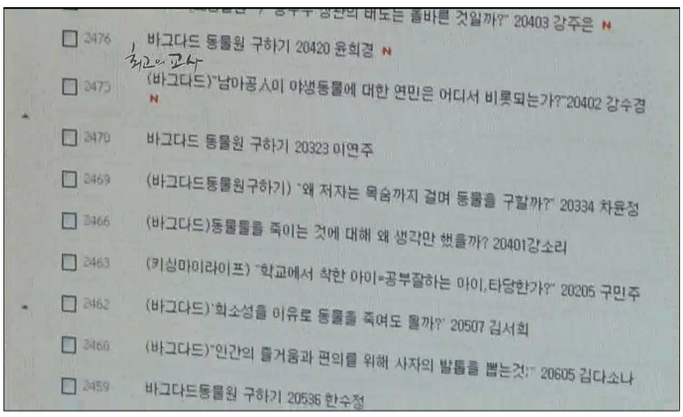
1. 사전작업 첫 번째 - 홈페이지(인터넷 카페) 활용하기

학생들이 인터넷 클럽에 질문거리를 올리면 토론수업을 시작하기 전 어느 때라도 학생들은 미리 그 질문들을 접하고 나름대로의 고민을 해 볼 수 있다. 또한 자기 반의 토론질문 뿐만 아니라 다른 반 학생들의 문제의식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교실간의 장벽을 없애고 사고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본시 질문이란 꼭 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그런 질문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움을 맛볼 수 있는 것이므로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질문거리를 보면서 자기 생각의 협소함을 깨닫곤 하였다. 인터넷 공간을 교과내용 전달을 위한 일방향적 공간으로 구성하지 않고 학생들의 문제의식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면, 수업의 사전 준비도 가능하게 되고 홈페이지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교사의 수고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사전작업 두 번째 - 사회자 교육

토론의 사회를 교사가 보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은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펼

치는 데 주눅이 든다. 학생들은 선생님 앞에서 말을 할 때 습관적으로 '마음 속 자기검열'을 한다. 어릴 적부터 선생님 앞에서는 멋지고 옳은 말을 해야 한다는 습성 때문에 '튀는' 발언이나 코믹한 발언은 스스로 삼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학생들이 독서토론 수업을 위해 인터넷 카페에 올린 질문들]

그러나 토론은 정해진 차선을 따라가는 도로 주행이 아니라 좌충우돌하면서 서로간의 비판과 동의에 의해 근거를 강화해 가는 작업이므로 학생들이 당당하게 자기표현을 하도록 해야 한다. 비록 교사가 듣기에 한심한 내용이거나 무의미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발언조차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펼쳐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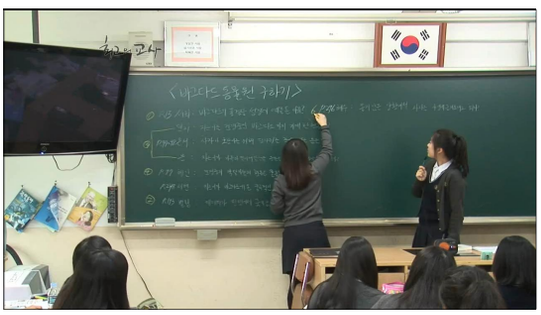
[각 반 토론의 사회자(자원)를 교육 중인 모습]

토론은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그 의미가 더욱 깊다. 교사가 자꾸 개입하면 활발한 토론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을 심화시켜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개진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자를 미리 교육시켜야 교사의 불필요한 개입을 막을 수 있다. 토론의 성패는 사회자가 5할 정도의 몫을 좌우한다. 사회자 선정의 원칙은 각 반의 자원자로 정한다. 그리고 매번 토론 때마다 바꾸어 더 많은 학생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한다.

3. 사전준비 세 번째 - 3명의 서기와 좌석표

학생들이 토론을 할 때 교사가 전체를 조망하고 있지 못하면 수업의 긴장과 흐름이 꼬이고 사회자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교사의 역할을 보조하기 위한 협력자들은 서기들이다. 필자는각 토론마다 3명의 자원자를 서기로 두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서기들도 자원자를 선정의 원칙으로 하고, 한 번 맡았던 역할은 다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더 많은 학생에게 기회를 주었다.

1) 칠판 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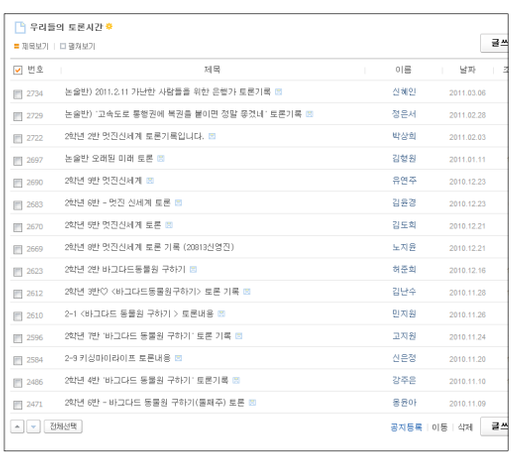


[현장 토론을 돕는 칠판서기의 기록 활동]

이 사람은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을 칠판에 정리하는 서기이다. 쟁점과 발언, 그리고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적음으로써 반 전체 학생들이 진행상황을 한 눈에 파악하게 하도록 도와준다. 이 학생은 순간적인 정리 능력이 뛰어나거나 토론에 열의가 있는 학생이면 된다. 반드시 토론 수업을 계획할 때 미리 서기를 정해 놓고, 교사 홈페이지에 있는 질문들을 숙지하도록 권유한다.

2) 인터넷 기록 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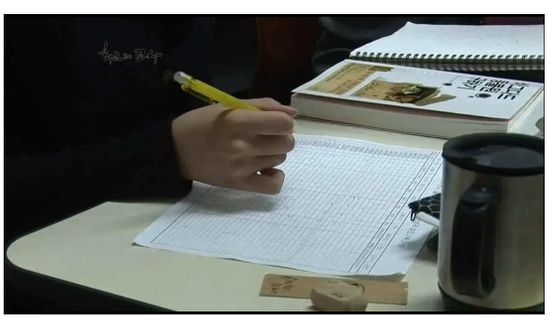
칠판 서기와는 별도로, 자기의 주관에 따라 나름대로 토론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서기이다. 이 서기가 자세하게 기록한 토론 내용은 홈페이지의 〈독서 토론란〉에 올리게 하여 다른 반 학생들도 모두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각 반의 토론 내용은 이 서기의 기록에 의해 두고두고 살아 있는 자료가 된다.


우리들의 토론시간

번호	제목	이름	날짜
2734	논술반) 2011.2.11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 토론기록	신혜인	2011.03.06
2729	논술반) '고속도로 통행권에 복권을 붙이면 정말 좋겠네' 토론기록	정은서	2011.02.28
2722	2학년 2반 멋진신세계 토론기록입니다.	박상희	2011.02.03
2697	논술반 오래된 미래 토론	김형원	2011.01.11
2690	2학년 9반 멋진신세계	유연주	2010.12.23
2683	2학년 6반 - 멋진 신세계 토론	김윤경	2010.12.23
2670	2학년 5반 멋진신세계 토론	김도희	2010.12.21
2669	2학년 8반 멋진신세계 토론 기록 (20813신영진)	노지윤	2010.12.21
2623	2학년 2반 바그다드동물원 구하기	허준희	2010.12.16
2612	2학년 3반♡ 〈바그다드동물원구하기〉 토론 기록	김난수	2010.11.28
2610	2-1 〈바그다드 동물원 구하기 〉 토론내용	민지원	2010.11.26
2596	2학년 7반 '바그다드 동물원 구하기' 토론 기록	고지원	2010.11.24
2584	2-9 키싱미미라이프 토론내용	신은정	2010.11.20
2486	2학년 4반 '바그다드 동물원 구하기' 토론기록	강주은	2010.11.10
2471	2학년 6반 - 바그다드 동물원 구하기(돌제주) 토론	홍윤아	2010.11.09

전체선택 | 공지등록 | 이동 | 삭제

[각 반의 기록서기가 정리하여 올린 토론 기록 화면]


[학생들의 발언을 성격별로 분류하여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체크 서기의 모습]

3) 체크 서기

이 학생은 듣고 그 내용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횟수를 '正'자로 체크한다. 이는 학생들의 발표력에 대한 양적인 평가 자료가 될 것이며, 학생들 각각에 대한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분석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서기는 수업의 마지막에 학생들이 발언한 토론 평가내용 등을 기록하여 다음 토론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긴다. 학생이 발언성격을 구별하여 체크할 양식은 교사가 미리 만들어서 담당학생에게 주도록 한다. 다음은 학생에게 제공한 체크기록 양식 내용이다.

토론발언의 성격 분석 자료

날짜 : 년 월 일 요일				책 :			사회 : 기록서기 : 칠판서기: 체크서기 :					
연번	학번	이름	토론 질문	추가 질문	주장	반박	동의	설명	인용	예시	토론 진행 발언	토론 평가 발언
1	1102	김미*										
2	1112	박은*										
3	1132	황보*										
4	1302	강윤*										
5	1303	강인*										
6	1314	심나*										
7	1317	원주*										
8	1329	차윤*										
9	1426	정다*										
10	1505	김슬*										
11	1515	유정*										
12	1620	이다*										
13	1702	강혜*										
14	1706	김태*										

4) 교사

학생들끼리 사회도 보고 토론기록도 하는 동안 교사는 각 학생들의 발언에 대한 질적 평가를 진행한다. 교실의 뒷자리나 구석자리에서 발표하는 학생들의 발언 내용을 분석하고 특징을 기록해 두는 것이다. 이 누적된 기록을 근거로 하여 〈학교생활기록부-세부항목 및 특기사항〉란에 수행평가 문항을 서술형으로 기입한다.

남궁*희	'갈매기의꿈(리처드바크)' 토론을 할 때 '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 나는 것이라는 관점의 해석을 통해 목적과 수단의 차원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살펴 보는 사고 성향이 돋보임.
성*애	'갈매기의 꿈(리처드 바크)' 토론을 할 때 조나단의 '삶의 목적'을 '나는 것'과 연관지어 설명하면서 책 속에 흩어져 있는 사례들을 모아 연관성 있게 맥락을 만들어 설득력 있게 설명함. 논점을 다루기 전에 출판사 판본의 번역된 차이를 먼저 확인함으로써 오독에 의한 혼란을 피하도록 유도함.
이*지	'떡갈나무 바라보기(주디스콜외)' 토론을 할 때 사물의 이해와 글의 해석에서 '기준'의 설정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잘 설명함. 과학책의 구조와 전개 방식에 대한 호기심이 많음.
이*홍	'떡갈나무 바라보기(주디스콜외)' 토론을 할 때 사회를 매우 잘 봄. 학생들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고 쟁점을 만들며 그 토론쟁점을 마무리하는 과정이 매끄러우며, 토론을 의도대로 만들고 이끌어 가는 리더쉽이 매우 돋보임. '오래된 미래(헬레나노르베리호지)' 토론을 할 때 오래된 미래의 역설 속에 담긴 의미와 뜻을 재치있게 잘 풀어서 설명함.
이*화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준 고양이(루이스 세뿔베다)' 토론을 할 때 주장을 할 때 자기 관점을 분명히 하여 발표하는 능력이 좋으며 책의 구체적 내용을 토대로 깊이 분석한 후 문장의 의미를 개성있게 해석함. '갈매기의 꿈(리처드 바크)'

	토론을 할 때 '먹는 것'과 '나는 것' 중 자아실현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라는 점을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과 연결시켜 주장하면서 이론적 정당화를 시도함. '책만 보는 바보(안소영)' 토론을 할 때 시어 해석과 관련하여 원 관념의 이미지를 맥락 속에서 잘 찾아 그 의미를 독창적으로 설명함. 책을 매우 꼼꼼하게 읽고 전체를 궤뚫어 그 흐름을 잘 간파함. '떡갈나무 바라보기(주디스 콜 외)' 토론을 할 때 질문의 의도 파악이 빠르고 순발력있고 차분하게 생각을 떠올리고 잘 발표함
조*인	'떡갈나무 바라보기(주디스콜외)' 토론을 할 때 '현미경적 시각'과 '망원경적 시각'의 의미 해석이 좋음. 세밀하고 구체적인 용어로 비유적 표현의 본의미를 잘 풀어냄. ' 오래된 미래(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토론을 할 때 라다크로부터 얻은 교훈을 책의 대표 주제뿐 아니라 세부주제까지 꼼꼼하게 이해하고 논거로 활용함.
최*정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준 고양이(루이스세뿔베다)' 토론을 할 때 고양이들의 박애와 사랑의 마음을 자기 경험과 연관지어 의미를 살려 유머러스하게 잘 발표하였고, 사례와 설명이 조리있고 알기 쉬워서 주장의 설득력이 높음.

[독서토론 수업 후 생활기록부 기록 예시]

V 토론에서 교사가 취해야 할 10가지 자세

초기 토론에서는 교사의 개입이 잦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토론을 어느 정도 익히기 시작하면 교사의 개입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 교사는 사회자가 쟁론에 끼어서 방향을 못 잡고 있을 때나 학생들의 분위기가 가열될 때 흐름을 돌리는 정도로만 개입한다. 떠드는 학생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조용히 옆에 가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은 아무 평등하다고 강조해도 현실적으로 동급이기 어렵다. 성급히 자기 입장을 말해서 학생들의 발언을 정리해버린다거나 미리 결론을 예단할 경우 학생들은 금방 입을 다문다. 우스개 소리나 농담 따먹기로 흐르는 경우를 제외하면 발언에 제재를 가해서도 안 된다. 가끔은 엉뚱하고 창발적인 질문이나 사례 제시가 학생들에게 새롭고 경이감을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탐구 공동체에 참여하는 교사는 공동체 바깥의 일원이 아니라 그 내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탐구자이다.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탐구 자세를 북돋으려면 '강의하는 교사'의 자세가 아니라 기꺼이 자기 생각을 말하고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탐구 자세를 먼저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 사이에서 지적 결과물을 독점하고 학생들을 수동적인 감탄자로 대하는 순간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끄집어내기보다 교사의 의중을 탐색하여 나름대로 추정한 방향으로 내면적 자기검열을 할 가능성이 높다.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다음은 영국의 철학자 라일(Gilbert Ryle)이 좋은 선생님의 자세를 묘사한 10가지 실제 그림이다.[6] 이것은 교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행동 요목으로써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

"1. 좋은 교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할 때,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한다.
2. 그들은 자신들이 학생에게 가르친 것, 즉 '그것을 적용해라, 다시 써 봐라, 그것을 발전시켜라, 결론을 이끌어내라, 이전의 수업과 결합해보아라 등등'을 학생이 스스로 해내기를 기대한다.
3. 그들은 학생이 했으면 하는 것을 말로 하지 않고 보여준다. 그런 다음 같은 방법으로 학생이 움직이고 입장을 표명하도록 한다.
4. 그들은 질문으로 학생들을 괴롭힌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답하면 그것에 대해 또 질문하면서 학생들을 괴롭힌다.
5. 그들은 학생들이 환위나 삼단논법 같은 실습을 하게하며, 그것을 다시 또 연습시킨다.
6. 그들은 학생들의 손을 이끌어 반쯤 익숙한 길로 데려오다가 마지막에는 우리 스스로 도착하도록 학생들이 비틀거리는데도 놔두고 떠나버린다.
7. 그들은 심하게 잘못된 해법들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발언 중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정확히 지적하기를 기대한다.
8. 그들은 부분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좀 더 쉬운 문제들로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면서 이 유비추론들을 계단의 난간으로 삼아 올라가도록 한다.
9. 그들은 복잡한 문제를 좀 더 단순하게 잘라 준 후, 단순해진 문제들을 해결해 보거나 그 해결들을 다시 조립해보도록 도와준다.
10. 학생들이 어떤 해법을 찾았을 때, 그들은 학생에게 보조 주제를 주거나 유사한 종류의 문제를 제시한다."

Ⅵ 탐구공동체 독서토론 사례 - 『오래된 미래』를 중심으로

"장서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정리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은, 책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잘 정리되어 있는 서고만큼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은 양의 지식이라 해도 자기 스스로 한 번 철저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경우에는 양에 있어서는 훨씬 적어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본 지식보다는 그 가치가 훨씬 낮다……철저하게 생각한 것만이 정말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쇼펜하우어

1. 교재『오래된 미래』

『오래된 미래』는 스웨덴 출신의 언어학자인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여사가 언어연구를 위해 1975년 라다크 지방으로 여행한 후 그 지방의 변화상을 서술한 책이다. 처음에 헬레나는 라다크인들의 생활방식을 보며 자신이 교육받고 자라온 문화적 인식으로 라다크인들을 평가하였지만, 그곳의 생활방식에 내재된 깊은 지혜와 서구적 문화의 병폐들이 잊고 있던 인간적 방식들을 이해하고 동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75년부터 라다크에 불어닥친 서구화의 유입으로 인해 라다크가 어떻게 전통을 잊고 현대 문명의 사막화를 경험하는지를 세세히 기록하고 있다. 헬레나는 세계화와 산업화로 인한 전지구적인 소비주의 단일문화가 전통 라다크의 농업체제를 해체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경쟁으로 내몰며 내면적 풍요와 평화를 해치는지를 조목조목 본 대로 기술하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결과 헬레나는 지역적인 것, 작은 것, 친밀한 것, 자연적인 것, 인간적인 것, 그리고 가슴속의 힘 등의 복권을 강조하며, 자연과 함께 가는 개발을 위해 '라다크 프로젝트'라는 단체를 만들어 생태환경 친화적인 개발모델을 제시하고 실천하고 있다. 자연과 생태를 중심으로 사고하며 발전하는 개발을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 아름답다』와 더불어 훌륭한 고전의 역할을 하는 책이다.

2. 『오래된 미래』에 관한 토론 질문들

다음은 『오래된 미래』를 여름방학 숙제로 읽어오고 토론거리를 하나씩 질문하도록 한 숙제들이다. 여름방학 직후에는 이 책을 읽어온 학생들이 많지 않았지만, 토론수업을 시작할 때는 읽은 학생들이 꽤 많아졌다.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 줄 때 질문 하나와 그 질문을 제시하는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질문의 근거들을 살펴 토론의 방향을 다른 학생들도 이해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그 과제물들이다.

Q) 라다크에 사는 사람들은 문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사는데 그들의 생활에 전혀 불편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다크에 사는 사람들은 통치나 지배의 개념(흔히들 정치라고 한다)없이도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공생하며 잘 살아간다. 심지어 연료나 옷을 만들 수 있는 섬유까지도 외부에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자급자족하며 살아간다. 이 책의 내용은 지극히 나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 했다. 아직도 지구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었고 그들의 순수하고 순진한 면이 본받을 만한 것 같았다. 문명이 우리들에게 편안함과 편리함을 주는 대신 우리들에게서 순수함과 아름다움은 빼앗아 간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꼭 라다크 지방이 아니더라도 문명의 혜택이 닿지 않은 깨끗한 곳을 가보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다.

Q) 인간은 왜 누구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을까?
물론 나도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

Q) "모든 환경은 상호 연관성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에 의해서 이 세계는 멸망가능한 것일까? 또한 인간적인 규모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생겨난다면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어떠한 운동감의 생성은 계속되는 것일까?

Q) 라다크 사람들은 정말로 검소한 것일까?
책을 읽으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작가는 라다크의 사람들을 무척이나 검소하게 평가했다. 제 2장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그 무엇도 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 옷은 기울 수 없을 때까지 기워 입으며 배설물조차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정에 수백 개씩의 보석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그 보석들은 수입된 것이라고 한다. 보석을 얻기 위해선 교환할 물건이 필요하다. 그들은 검약한 생활로 얻어진 것들을 보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을 검소하다고 할 수 있는 걸까?

Q) 라다크는 서양 문물과 접하기 전이 더 안정되고 풍요로왔다. 환경은 자연 그대로 두었을 때 가장 이상적이게 된다고 생각이 든다. 라다크는 너무 빠르게 변했다. 무엇이 사람들을 빠르게 변화시켰나?
평온한 라다크에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문물과 사상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서양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가난한 라다크,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오히려 위대하다고 칭송되던 그들의 발전이 라다크를 망쳤고 지금 다시 새로운 생각으로 라다크를 살리려고 한다... 과연...

Q) 서구의 헤픈 씀씀이... 지구의 자원은 소들이 아니라 아껴 쓰고 오래 유지해야 할 자본이라는 사실을 현대 산업문명은 망각하고 물 쓰듯 써대며 오늘의 온갖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정작 인간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Q) 많은 돈을 갖고,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현대인들은 행복한 것이며, 또 가난하고 문명으로부터 소외된 라다크 마을 사람들은 과연 불행했던 것일까?
라다크 마을에 문명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하나 둘씩 무너져 갔다. 지금도 현대인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과연 소외된 라다크 마을 사람과 현대인들은 현저하게 다른 것인가, 또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 것인지 궁금하다.

Q) 진보는 항상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가?

서구 문명이 도입되기 전 라다크 사람들은 돈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고 친족과 가족과의 긴밀한 유대감을 가지며 평화롭게 사는 민족이었다.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초라하다 생각했고 서구화되기 시작했다. 처음 본 이방인에게 과자를 주던 아이들은 대신 관광객들에게 빈손으로 돈을 달라고 하고, 처음에는 라다크에 가난이 없다고 말하던 사람도 서구 문명이 도입되면서 자신들이 가난하다는 열등의식을 느끼게 된다. 집안에서 여성의 지위 또한 하락했으며 그네들의 얼굴에는 그 환하던 미소가 보이지 않는다. 진보, 즉 개발은 인간에게 시간을 절약해 주지만 상대적으로 그 시간은 과거보다 모자란다고 느끼게 된다. 라다크에서는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시작된다는데... 진보는 과연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 주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Q) 진정한 발전이란 무엇인가? 바람직한 문명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 나오는 라다크와 우리 나라는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산업발전으로 인해 너무나도 많이 변해버린 것들을 보면서 진정한 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Q) 제 3세계의 문명화를 제한한다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 지식이나 정보에 관한 미흡함이 없을 경우 – 문명화하고 싶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닐까?

한 예로 알프스의 쁘랄로냥이라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도 산 속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없이 농경과 목축 생활을 하며 고립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알프스가 개발이 되면서 이들은 라다크 사람들과 비슷하게 농경을 그만두고, 관광업이나 다른 일들을 하게 되었다. 물론 라다크같이 그들 고유의 문화를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주민의 증언을 들어보면 지금 생활에 있어서 불만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문명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라다크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쩌면 문명화된 나라들이 오히려 변덕스럽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다. 쌀과 설탕을 가져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마음이 변한 자식들을 데려와 예전처럼 버터차와 보리빵으로 살라니, 황당할 것이다. 물론 잘못된 서구화는 라다크 문화를 짓밟을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는 하나 그럼 우리들 – 서구화된 나라들 – 이 그 동안 문명화를 위해 버려왔던 우리들의 전통과 그에 따른 힘겨움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는 문명화된 나라들이 나서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갖추어지게 한 후 라다크 사람에게로 결정을 돌려야 할 것이다.

Q)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는 왜 제목을 '오래된 미래'로 지었을까?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글 같은데 말이다. '오래된 미래'라는 뜻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3. 실제 수업

그 동안 다루어졌던 책과는 다르게 이 책은 소설이 아니라 기행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허구적인 이야기 구조를 가진 소설 토론과는 다른 형식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오래된 미래』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를 겪었던 우리 나라의 과거 역사와 닮은 점이 많고, 현대 산업사회를 경과하고 있는 우리의 삶과도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 안에서만 토론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다른 수업은 토론교재 내부의 구조와 의미를 따지는 데 집중하면 되었지만, 이 책은 현재의 우리 삶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므로 적당한 논거를 찾지 못해 끈기있게 주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필자는 바로 학생들이 이 때 느꼈던 답답함이 새로운 사고의 시작점이라 생각한다.

다음은 2학년 9반에서 진행되었던 토론 수업을 그 반의 서기를 맡은 학생이 정리한 내용이다.

2-9 토론 수업 기록
사회 : 박경선
기록서기 : 이정연

⑴ 제기된 질문들
도연 : 제목이 '오래된 미래'인데 과연 이 책의 내용을 '미래' 쪽에 초점을 맞춰서 다뤄야 하는가? 아니면 '오래됨'이란 개념에 맞춰서 다뤄야 하는가?
민정 : 개발 → 반개발 상태로 돌아왔는데 어느 쪽을 더 강조한 것인가?
오선 : 반개발의 기준은?
미화 : 자본주의가 아닌 대안은 무엇인가?
미선 : "라다크로부터 배운다"는 부제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 개발 전의 정신과 전통을 배우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 전후 의 달라지는 과정과 모습을 배우는 것인지?
민정 : 각 장의 제목 밑에 붙어있는 구절들은 각 장의 내용을 빗댄 것인가? 책 속에서 그 역할은?
민정 : 개발 전 상태가 행복한 것인가? 아니면 개발 후의 상태가 행복한 것인가? 그리고 지금의 우리는 행복한가?
지혜 : 개발전의 삶을 행복해 했을까?
정현 : 라다크 개발 후 그 사람들은 불행하기만 했을까?
현정 : 라다크에 서양문물이 (개발되지 않았더라도) 들어오지 않았어도 만족스런 삶을 이어 나갔을까?
수화 : 이 사람들의 개발 후 삶과 지금 우리의 삶의 차이와 공통점은?
경선 : 라다크의 공동체적 삶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
윤혜 : 개발 전 라다크와 개발 후 라다크의 차이를 정리한다면?
선영 : 전통적인 생활방식(농업경제 기반)이 행복한가?
효경 : 개발 전 라다크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고 일을 해결했다..어떻게 가능했을까?
진실 : 라다크의 개발이 필요한 개발이었을까?
설희 : 작가(헬레나 노르베리-호지)는 라다크의 개발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았다.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녀의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편파적이다!
도연 : 개발에 대해 작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개발 전의 라다크는 낙원이라고 보아도 좋은가?
민정 : 제 9장의 제목인 '화성에서 온 사람들'에서 화성이란 외부세계를 말하는 것인가?
민정 :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와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의 '오래된 미래'를 비교해 보자. 어

느 세계가 더 긍정적인(더 좋은) 사회인가?
효림 : 왜 제목이 "오래된 미래"인가?
지혜 : 라다크를 개발해야 했는가?
유선 : 자연그대로의 사회가 좋은가, 발달된 사회가 좋은가?
선민 : 라다크인들이 현대문명의 특징을 선호하는 이유는?
은지 : 라다크의 기성 세대들은 현대문명을 바라지 않았을까?
선민 : "空"(공)의 개념은?
홍욱 : "옴마니 밧메훔"의 역사, 전파경로, 어원은?
소진 : '가난'의 정의는?
금주 : 개발 전 라다크에서는 '가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연 : (p150,P162 책 두 권 사진참고) 진보, 퇴폐일까, 퇴보인가? 라다크의 입장에서...
미희 : (p52)샤먼과 의원에 관해 질문하고 싶다. 이게 가능하고 치료되는가?
혜진 : 보석을 집안에 쌓아 두고 사는 삶이...이게 진짜 검소한 것인가?
소라 : 일처다부제에서 어떻게 싸우지 않고 살았을까?
우선 : 일처다부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경선 : 일처다부제가 소수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전통일까? 인구조절을 위한 의도적 계획일까?
남이 : 우리 핵가족 사회에서 라다크의 가족을 본받을 점은?
소진 : 제일 옳은 부부제가 무엇일까?
선주 : (초판p85를 보면) 라다크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신령을 왜 대접하나??
미진 : '호랑이 줄무늬는 겉에 있고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의 뜻은?
주현 : P.33 "에콜로지" 는 무슨 뜻일까?
영실 : 개발 전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대등하거나, 높았던 이유?
성민 :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왜 가장 경멸하는가?
은경 : '에코'의 뜻과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각광받는 이유는?
현주 : '작은 티벳'이라고 불리우는 이 곳에 중국의 영향은 없었나?
달하 : 책을 두꺼운 재생용지로 만든 이유는?

⑵ 실제 토론

㈎ 개발 전 상태가 행복한가? 아니면 개발 후가 더 행복한가? 현재 우리는 행복한가?

-사회자 : 개발전 라다크인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민정 : (개발 전)그들은 평균수명이 길고 늙어도 건강하며 평화롭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 행복했을 것이다.
-설희 : 평화롭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라다크인들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도연 : 그 사람들은 언쟁을 하지 않는다. 싸움이 없으므로 평화롭지 않은가?
-설희 :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라다크인들의 삶을 좋게 평가하려는 작가의 주관이 섞여 있다.
-민정 : 라다크는 우리의 농촌 모습과 비슷한 평화로운 분위기이다.
-설희 : (반박)도시인들의 눈에 비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아닌가?
-도연: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 는 라다크인들의 말에서 공존이라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충돌이 없다는 것은 함께 사는 삶에 만족하다는 것이므로 행복할 것이다.
-민정 : 발전을 위해서는 언쟁도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라다크인들이 행복해 보이지만 그래도 뭔가가 부족한 듯하다.
-도연 : 행복은 극히 주관적인 조건하에 성립하므로, 자기가 만족하면 행복한 것이다.
-미선 : (반박-민정)행복은 100% 주관이다. 다툼이나 경쟁 없이도 일부는 발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서구적 시각에서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라다크인들은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 속에서 사는 것에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도연 : 내가 만약 라다크에서 산다면 불행할 것이다. 그리고 라다크인들도 역시 우리 사회에서 산다면 불행할 것이다.

-사회자 : 그러면 개발 후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민정 : 서구적 학습과 개인주의, 공동체의식이 무너지기 때문에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미선 : 항상 일상적이고 평이로운 속에서 살다가 개발이 되고 나서 그 문화에 대한 충격이 터진 것이다. 헬레나 또한 서구적 삶에서 살다가 라다크에서 새로운 충격을 발견한 것이 아닐까? 공동체적으로 느꼈던 것들이 개인주의적으로 바뀌므로 라다크인들은 스트레스를 느낄 것이다. 또한 라다크인들도 사람마다 각자 다를 것이다.
-도연 : 서로 도울 때에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14장에서 정부가 그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줄수록 서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지고 이러한 개발이 사람들의 행복을 깨뜨렸다고 생각한다. cf) 헬레나와 팔조르의 대화(제14장 ‘분열된 공동체’ - 130쪽)

-사회자 : 개발 이후 라다크인들에게 일어난 부정적 변화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은미 : 가족이 붕괴되고 노인이 가족내에서 소외되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사고와 지혜를 비웃는다. 사람들은 자만심과 개인주의에 물들어가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익명성이 강화되었다.
-미혜 : 개발하기 전에는 싸움이 없었다. 그들은 더불어 살았다. 하지만 개발 후에는 이기주의 성향이 나타났다.
-정민 : 12장 마지막. 지역적 특성을 삭제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직업을 찾다보니 자급자족이 없어지고 가난해 졌다.
-수연 : 실용성을 추구하고 유행에 따라 자신을 만들어가며 익명성속에 숨어버렸다.
-혜진 : 개발 전에는 위험이나 범죄가 없었지만, 개발 이후에는 온갖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다.
-혜지 : 협동과 공생을 하던 사람들이 경쟁 원리에 의해 자기 중심적으로 되었다.
-세현 :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별의식이 생겨 담이 높아지고 모든 사람이 외로와 졌다.
-미희 : 개발전에는 여성의 역할과 가치가 인정되었지만, 개발 이후에는 사회적 노동을 하는 남성만을 우대하고 여성은 가정에 갖혀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였다.
-혜지 : 검약이 몸에 배고 재활용을 생활화하던 전통방식에서 벗어나, 처리가 어렵고 오염이 심한 물질들이 쌓이게 되었다.
-리아 : 종교(불교)중심의 가치관이 바뀌고, 더이상 종교적 정신상태에 얽매이지 않는 물질적 삶이 나타났다.

사회자 - 개발전 사회의 나쁜 점과 좋은 점을 정리해 보자.
-혜승 : 사람들 사이가 화목하고 순리대로 나아갔다.
-미혜 : 전에는 정보가 느렸다.
-정민 : 자기들이 만족하면서 사는데 정보가 느리다는 것은 별 소용이 없다.
-선영 : 일방적인 정보이고 개인들의 정보가 아니므로 전의 생활은 정보가 빠르다.
-미혜 : 지금 정보를 얻고 있는 이유는 세계가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다.
-선영 : 정보를 보는 시각은 어떠한가? 라다크 인들이 변화된 사회에서 정보는 그 사람들이 얻지 못해하는 정보일까?
-정민 : 라다크인들은 자급자족인데 다른 정보는 필요 없어도 산다.
-선영 : 개발후의 산업개발정보는 더 필요하지만 개인들간의 이야깃거리의 정보는 없다.

사회자 - 라다크 사람들이 개발전 행복했다는 것은 동의하는가?
-주연 : 자기만족이므로 행복했다!
-정아 : '행복'이라는 단어사용은 어울리지 않는다! 비교할 대상이 없었기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은경 : 책속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경선 : 그리고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자기만족은 가능하다!
-정아 : 라다크 사회에 '행복'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상대성이 아닌, 발전없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였을 뿐이다!

-남이 : 개발전이 더욱 났다! 라다크의 개발은 무차별적 개발이었으므로~
-우선 : 의료, 교육, 문화적인 면에서는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앞선 기술이 도입되었으므로 발전이라 생각한다!
-경선 : 그러나 라다크인들이 새로운 것에 적응하지 못했으므로 더 나쁜 병이 났다!
-해임 : 동의한다. 수질 오염이 발생하고 평화로움이 깨졌다! 따라서 개발후 불행해졌다!
-우선 : 현대인이 누리는 문명생활은 만족할만한 좋은 점을 갖고 있다! 현대의 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아서는 안된다. 다만, 개발순서를 바꾸면 된다! 그렇지않다면 원숭이가 인간보다 더 행복한가?
-해임 : 나는 현대의 문명생활에 불만족한다! 그리고 개발후에는 환경문제가 발생하여 인간의 생활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
-윤혜 : 개발 자체를 하는 게 옳은가 안하는게 옳은가 하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 정도차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경선 :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문명은 사람들을 획일화시킨다! 우리 나라가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성실 : 라다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단시간에 급속도로 이루어진 개발이 문제이다!
-은경 : 그렇지만 일단 개발이 시작되면 조절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더구나 우리는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이다! 어떻게 단시간의 개발과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게 가능한가?
-성실: 물론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선진국이 아닌 후발 개발국들은 이미 선진국의 피해를 교훈으로 삼아 그 과정을 피하려는 노력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각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주 : 내 생각에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개발문명이 급속도로 진행되긴 하였지만, 나쁜 것과 함께 좋은 것도 들어오므로 모든 현상에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장단점이라 정리하고 싶다. 다만, 개발을 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가를 문제삼아야 할 것이다. 라다크에서는 라다크 사람들 중심의 개발이 아니라 정부가 파견한 외부 관리인의 획일적 강요가 문제였다는 생각이 든다!
-오선 : 현대 문명이 진행되는 속도를 염두에 둘 때 개발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한가인 이야기이다.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든 라다크든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한다! 같은 시간동안 빨리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 "멋진 신세계"와 "오래된 미래"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바라던 세계는?

사회자 : 먼저 “멋진 신세계”와 “오래된 미래”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자. "멋진 신세계"에 대한 장점부터 살펴보면?
-홍욱 : 알파 계급일 경우 살기에 매우 편할 것이다.
-은주 : 그들은 어떤 계급이던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만족하고 산다. 부럽다.
-은영 : 라다크의 사회보다 문명이 발전되었고 자유로운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멋진 신세계의 방향이 더 좋다. 왜냐하면 발달된 현대 문명과 기계문명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 사회는 편리성과 물직적 생활 수준이 향상된 사회이다.
-진희 : 멋진 신세계는 자신에 대해 100% 만족하는 사회이다.
-유나 : 라다크의 개발후 사회는 문명에 대한 동경을 마음속의 부담으로 갖고 있지만, 멋진 신세계에서는 자기의 만족을 보여준다.
-진희 : 계급을 나눔으로서 자신의 신분에 맞게 살면 문제가 없다.
“사회자 : 멋진 신세계"에 대한 단점은 어떠한가?
-지혜 : 아무리 생각해도 멋진 신세계의 삶은 참된 행복이 아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해도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더 행복하다.
-효림 : 동의한다. 정신적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다.
-현정 : 정신적인 만족이 있어야 물질적 만족도 있는 것이다.
-선영 : 라다크인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만족을 갖고 있다.(야크,소) 서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력이 가치척도의 기준이지만, 전통적인 라다크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 만족해 했다. 멋진 신세계인들의 자기만족보다 더 우월한 만족감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자 : 그러면 이제는 “오래된 미래"에 대한 장점을 살펴보자.
-향복 : 라다크인들은 자신의 주워진 환경에 만족한다.
-현정 :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다는 건 기본적인 것에 대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다.
-지혜 : 전통적인 라다크의 삶을 동경한다. 그들은 현대 문명을 동경하지 않을 수 있다.
-은지 : 결국 미래는 원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
-현주 : 라다크의 전통적 방식을 지향하는 것은 퇴보가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현정 : 원하는 세계라고 똑같이 행복할 필요는 없다.
-백합 : 라다크인들의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인 면이 아닌 정신적인 면에서 찾을 수 있다.
-숙영 : 스스로를 낙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평안을 느낀다.
-현정 : 복잡한 사회에서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다.
-세나 : 인생의 선택권을 정할 수 있다.
-재현 : 자기 입장을 가질 수 있다.
-백합 :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 도전이 있다.
사회자 : “오래된 미래”의 단점은 무엇일까?
-은영 : 아무리 생각해도 오래된 미래는 불편하다. 정신적 행복도 물질적 문명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은영이의 절규 ^^;;) 물질적인 것이 더 좋다!!

사회자 : 그러면 어느 사회가 더 좋을까?
-미혜 : 완전을 추구하는 멋진 신세계 쪽이 낫다.
-혜승 : 완전을 추구해도 가치가 떨어진다.
-정민 : 오래된 미래는 인간 본질적 측면에서 좋고, 멋진 신세계는 안정된 사회 측면이 좋다.
-지혜 : 오래된 미래는 반문명, 자연친화적 삶을 상징하고, 멋진 신세계는 문명, 편리 추구를 상징한다. 만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인간적 삶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생각해 보았을 때 당연히 오래된 미래를 택해야 할 것이다.
-민정 : 두 세계를 절충할 수는 없을까? 우리는 꼭 양자 중 하나의 길만 선택해야 하나? 두 세계를 절충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선생님 : 이 책의 후반부에 보면 ‘라다크 프로젝트’라 하여 반개발 프로그램을 실천하기 위한 단체들과 세계인들의 노력이 나온다. 이것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
-도연 : 잠시 책을 다시 찾아보니 ‘라다크 프로젝트’는 개발후를 되살리자이다. 지금 우리는 개발도상국은 무조건 개발하자이고 유럽은 다시 돌아가자는 추세이므로 라다크 프로젝트와 맥락이 같다. 이를 교훈삼으면 해결책이 나올 것 같다.

㈐ “왜 제목이 "오래된 미래"인가?”
“라다크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지은이가 남기려던 메시지는?”

사회자 : 제시된 질문들은 모두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마지막으로 토론해 보자.
-현주 : 전통적인 것을 미래에서도 행한다. 라다크로부터 전통을 배운다.
-지현 : 전통적인 것을 배운다. 자연을 파괴하지 말자.
-진희 : 자연 친화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개발되기 전 라다크 사람들의 자연 친화적인 삶을.
-은영 : 문명 수용시에는 비판적으로 하자.
-백합 : 서구 문명을 쫓지만 서구 문명은 전통을 쫓는다.
-선민 : 개인이지만 하나이다. 공존의식을 갖자.

-향복 :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현정 : 욕심으로 인한 상처가 없다. 이상의 것이 아닌 현재에 만족.
-지혜 : 계속 발전될수록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진희 : 멋진 신세계와 오래된 미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둘로 나뉜다.
-현정 : 그렇지만 너무 현대 문명을 비판적으로 보면 "하늘을 나는 섬의 나라"처럼 되지 않을까?
-민정 : 개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가장 개발된 사회에서 등장하고 있다.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미선 : 동의한다. 서구에서 '반개발'을 위한 각종 단체가 생겨나는 걸 보면 고립된 사회를 염려하는 것은 기우라 생각한다. 다만 개발의 물살이 너무 세어 그 힘이 미약한 점이 문제라 생각한다.

〈학생들의 토론 평가 〉
-경희 : 생각도 못했던 질문들이 나왔다. 언제나처럼 질문들의 다양함에 당황했다.
-상희 :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래된 미래가 좋다.
-현정 : 이 책은 기행문이므로 사실 그대로 읽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저자의 견문을 편견이라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수란 : 일처다부제에 놀랐다. 생각만 해도 통쾌하고 그런 사회도 있다는 것이 놀랍고 부럽다.
-소정 : 라다크의 사람들의 자기 내면의 평온, 만족을 보면서 부러웠다.
-민선 : 오래된 미래가 좋은 이유는 과학 문명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연 : 서기를 하느라고 힘들었다. 나도 오래된 미래가 좋다. 할 말이 많았지만 토론을 기록하는데 바빠서 발언을 하지 못해 아쉽다.
-현정 : 은영이를 궁지에 몰아 넣은 건 고의적이었다. 흐~.(상황설명:은영이가 말할 때마다 현정이가 반박을 했음...은영이의 절규도 이러한 이유이다...^^)

4. 토론 수업 이후 학생들의 감상문

학생들이 『오래된 미래』를 읽고 난 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기회를 주기 위해 책에 대한 견해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토론 때 큰 발언을 하지 못했던 학생들도 머리 속은 매우 복잡했을 것을 짐작케 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토론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그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었고, 평소 글쓰기를 싫어하던 학생들도 아무 불평없이 글을 적극적으로 써서 제출하였다. 다음은 학생들이 "'오래된 미래'라는 책 제목은 무엇을 뜻하는가?"와 "'라다크로부터 배운다'라는 부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작성한 글 들 중 몇 가지이다.

2712 김** "제목 '오래된 미래'의 의미"
『오래된 미래』를 읽고 나서 진보의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그저 막연하게 과학기술은 인류에게 긍정적 영향도 주지만 부정적 영향도 준다라고 배워오다가 라다크 사람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고 실감할 수 있었다. 요즘 들어서 인류는 생태계의 위기를 맞이했고, 그래서 자연친화적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적인 라다크의 생활은 이미 진보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자연으로부터 얻은 것을 자연에 돌려줄 줄 알았고, 자신들의 환경에 맞춰 야크와 소의 교배종을 만들어 낼 만큼의 지혜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 사이의 관계가 금전에 의해 연결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인간애를 통해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라다크 사람들이 서구에 동화되어

이러한 공동체가 깨지고 금전적인 것들을 통해 연결되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왔다. 라다크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는 오래된 전통의 지혜와 결합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부탄 왕국의 왕이 한 말이 떠오른다. GNP는 국민총생산이 아니라 국민총행복으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이러한 원리를 전제로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퇴보를 숨기고 있는 진보가 아니라 진정으로 진보할 수 있을 것이다.

2404 권** "제목 '오래된 미래'의 의미"

제목이 특이해서 읽을 때 계속 염두에 두고 읽었는데, 나는 '오래된 미래'라는 말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간단한 개념을 먼저 말하자면, 일단은 '자연' 그 자체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오래된 미래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책에서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적, 협조적 삶이 중요시된다는 것도 이러한 생각의 이유 중 하나이지만, 무엇보다 지금 창 밖으로 보이는 나무들, 흙들, 풀, 숲 등의 그 자체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그 무엇'일 수 있고, 그들이 이 시점에서 변질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우리와 영속적으로 함께 할 것이기에 동시에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우리 주변의 사물 중에서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자연 그 자체를 과거와 미래를 공유하는 것으로('오래된 미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내가 두 번째로 생각한 '오래된 미래'는 바로 '라다크의 역사' 그 자체이다. 지은이 노르베리가 라다크에서 머무는 동안 일어났던 라다크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산업사회에 전혀 물들지 않은 태초의 자연친화적 모습이었고,(이 때의 모습이 우리 나라의 과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서구문화가 퍼져 점점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지각있는 사람들의 모임과 노력 때문에 그 폐해와 위험성이 일찍 자각되고 인식되어 최근에는 새로운 발전의 양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보면, 단순히 시간적인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이 모든 단계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속하지만, 아직 2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회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지향해야 할 미래는 라다크의 과거인 3단계이다.

결국 라다크의 역사 그 자체가 현대 서구 산업사회를 비추는 거울인 동시에 예언의 구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래된 미래'라고 이름붙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2330 이** "제목 '오래된 미래'의 의미"

'오래된 미래'라는 말은 역설이다. '미래'라는 것은 앞으로 와야 하는 시간적 개념이고 '오래된'이라는 것은 이미 이전부터 전승되어 온 굳이 따지자면 현재완료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둘은 결코 실질적으로 이러날 수 없는 모순된 관련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적어도 책에서 만큼은. 라다크는 지금까지 시간을 지나쳐왔다. 그리고 지금도 시간을 먹으며 존재하고 있다.

라다크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책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호지는 라다크를 작은 티베트라 불렀다. 그 얘기는 생활 방식이라든가 종교적인 전반적 공동체 사회 형식이 티베트와 닮아 있고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리라. 그들은 전통적인 집과 전통적인 관습, 그리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책의 저자는 아마도 그것을 좋게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책의 저자는 라다크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면서 라다크와 그 변화를 제 3자의 입장에서 지켜보았다. 1975년 개방에 의해 거기에 체류할 수 있게 된 저자는 서구 문명이 급속히 유입되기 이전의 라다크 전통문화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평화롭고 자연친화적인 생활 양식을 보여 주었고 아마 거기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을 저자는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방과 함께 라다크는 급속한 서구 기계 문명 및 자본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면서 자체의 문명(?)을 잃어간다. 제 3자의 입장에서 저자는 '라다크 프로젝트' 등으로 급속한 물질문명의 확산을 막고 전통방식을 공존하게 하려 한다. 즉, 여기서 '미래'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시간적 개념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미래'라는 사회 양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결국 '미래'라는 것은 불확실하고 제대로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다. 이 '미래'라는 것은 긍정적

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다. 그러나 '오래된'이라는 수식어는 이 '미래'의 범주를 좁혀 좀 더 정확히 해주고 있다. '오래된'이라는 수식어가 들어 가야만 하는 이유는 '미래'가 긍정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저자는 라다크 프로젝트 등을 통해 보전하려 했던 라다크 전통의 생활 방식을 '오래된'이라는 시간개념을 표현, '미래'에 첨가, 방향을 제시하여 긍정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오래된 미래'는 미래의 긍정성과 그 방향을 제시,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337 장** "제목 '오래된 미래'의 의미"

정말, '오래된 미래'라는 제목을 보고 궁금해졌다. 왜 오래된 미래일까? 그런 게 어딨어? 미래에 오래된 것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바로 코 앞의 미래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데다가 미래는 새로운 것인데 말이다. 지금과는 다른, 지금보다는 더 나아야 한다는 이것은 우리의 유토피아에 대한 생각과 연관이 있다. 우리의 유토피아는 언제나 미래에만 있었다.

미래에 대한 준비로써 꼭 필요한 한 가지 - 현재와 과거에 대한 고찰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의 생각이지만, 현재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돌아봄'이 결여된 시대인 것 같다. 왜? 만족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사람들 대부분이 만족을 물질적인 것에서 찾다보니 새로운 미래만을 찾고 있는 것이다. 라다크 사람들은 전통을 오래도록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의지대로 지켰다기보다 자연스럽게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깊숙이 베어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아무도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고, 자원을 활용하는 법을 알았으며, 서로서로 공존을 위해 노력했다. 거의 화내지 않았고 화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크게 웃을 줄 아는 라다크인들의 모습을 읽어나가면서 오래된 미래의 뜻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라다크인들이 물질문명에 휩쓸려 갈 때, 안타까웠다. 그리고 물질문명 개발의 시대로 인해 우리가 잃게 된 많은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에게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 또 추구하던 것들이 우리가 지금껏 생각해 왔던 미래에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매우 짧은 생각이었다. 물론 '오래된 미래'는 있다.

2517 노**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헬레나를 통해서 본 개발 전의 라다크는 평화롭고,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일어나는 곳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한 것을 라다크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 자체를 의아해한다. 정말 이런 곳이 존재할까? 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라다크의 모습은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런데, 라다크는 개발이 되면서부터 그 모습을 잃어갔다. 라다크에 맞지 않는 서구의 발전 방식이 적용되면서 라다크는 점점 변질되어 갔다. 내 생각에 헬레나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적인 개발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 같다. 책에서 헬레나는 E.F.슈마허가 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읽고 개발이 반드시 파괴를 뜻할 필요는 엇다는 생각을 더 확고히 했다고 한다.(이 책을 꼭 읽어보고 싶다)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라다크는 그렇지 못했다. 헬레나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이다.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이 말의 뜻을 나는 두 가지로 생각한다. 첫 번째는 문명화된다는 것이 결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서구문명)으로 그들을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생활방식으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라다크에 적용된 잘못된 개발방식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것이다. 라다크는 잘못된 개발을 통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욱 많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다. 그 사람들을 우리 기준으로 보지 말 것! 내가 가장 많이 알게 된 것이다.

5. 학생들의 토론 평가문

필자의 수업은 주당 2시간씩 배정된 수업을 연강 형식으로 붙여 놓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토론 시간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언제나 토론은 제시된 질문들을 다 다루지 못하고 허겁지겁 끝내기가 일쑤였다. 그래서 학생들은 토론이 끝난 이후 어떤 느낌을 가지고 마무리짓는지 궁금하곤 하였다. 다음은 2학년 1반에서 토론이 끝난 이후 학생들에게 평가서를 제출토록 한 것들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2127 오**

내 생각에 철학토론은 항상 즐겁다. 물론 철학토론을 재미로 하는 건 아니다. 책을 읽고 나면 그만이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른 생각들과 마주치며 토론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이렇게 토론한 후에는 책을 한 10번 이상은 읽은 것처럼 그리고 나 혼자서 100번 이상 생각한 것만큼 그 책 한 권에 대해 다양하고 새로운 생각들이 정리된다. 철학시간이 2시간 연속인 것도 토론하기에는 모자란다는 생각을 했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정말로 일주일에 2시간이 제일 생각을 깊고 활발하게 하고 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시간인 것 같다. 3학년때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 평소에 내가 접근해볼려고 시도도 못해보는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유익하다. 좀더 소수로 구성된 토론모임이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활발히 말하는 친구들과 토론을 한 번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2140 정**

이번에 토론한 『오래된 미래』는 나에겐 조금 어려웠다.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새로운 분야의 책을 처음 접해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셔서 '나 혼자만 어려운가?' 하는 두려운 마음을 없앨 수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토론에 임했는데 친구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동안 내 생각을 다듬어서 공책에 적어 놓은 걸 그만 다른 친구가 먼저 발표해버리는 바람에 김이 새버렸지만, 그 발표했던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첨가할 수 있어서 나도 참여했다는 만족을 느꼈다. 요리조리 자신의 의견을 흥분하지 않고 말하는 친구들의 모습에 나도 좀더 자신감 있게 말해야겠다고 새삼 생각했다.

2106 김**

맨날 친구들의 머리만 보고 있다가 얼굴을 마주치고 토론을 한다는 것부터가 새로운 것이었다. 책의 내용도 평소에 읽던 것과는 사뭇 다른, 낯설었던 내용이었다. 좀 더 활발한 토론(평소 우리반의 모습처럼)을 했다면 20세기 마지막 철학 시간을 의미있게 보냈겠지만 의외로 친구들이 너무 깊이 생각하느라 그랬는지 발표가 뜸이 길었던 듯하다. 아마도 책의 내용이 낯설고 소설이 아닌 탓에 재미없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다. (솔직히 나는 『멋진 신세계』보다 재미있게 읽었다) 3학년에 가서는 철학 수업을 못하겠지만 2학년에서의 철학 수업은 한 해 동안 나에게 큰 의미를 가지게 해 주었다.

2148 최**

『오래된 미래』에 대한 토론을 평가해보면 우선 내가 평가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나도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머리속에서 정리가 안되고, 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다가 보면 벌써 다른 문제로 넘어가버리거나 결론을 내리는 것을 따라가기가 벅찼다. 철학시간에 1년 동안 많은 토론을 했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발표를 할 수 있는 용기도 부족하고 정리도 못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반성해야 할 것 같다. 어제 토론은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하는 것 같았는데 나는 내 생각을 잘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앉아 있기만 한 것 같아 토론에 열심히 참여하여 토론을 이끌고 나간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2141 정**
이번 토론에는 활발하게 참여하지 못한 거 같다. 책 내용이 토론하기에는 어려웠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번 토론에는 주로 듣는 입장이 되었던 것 같다. 책은 어렵지 않게 읽었는데……. 막상 말을 하려니깐 정리가 안되서 질문을 할 때에도 선생님이 말을 다듬어 주셨다. 나는 산업사회로 발전이 된 이후 태어났기 때문에 개발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서는 개발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생각되었다. 마지막 토론인데 활발히 참여하지 못해서 아쉽다.

2129 윤**
올 해 마지막 철학토론 시간이었는데, 내 의견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고 발표도 잘 하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쉽다. 오늘 토론 중에 라다크의 현재의 모습이 퇴보인가 진보인가 하는 문제에서 우리는 '퇴보도 진보도 아닌 과도기'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책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정체적 혼란기'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때 라다크의 과거보다 바뀌어 버린 모습을 현재 상태로 인식했다면 '과도기'라는 대답보다 더 분명하고 명확한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좀 더 깊은 토론을 할 수 있을 기회를 놓친 듯한 생각이 든다.

2125 신**
나는 『오래된 미래』라는 책에 대한 평가보다 우리반 아이들과의 토론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싶다. 나를 비롯해서 여러 친구들이 책을 어렵게만 생각하고 읽은 탓인지 발표할 때 머뭇거리는 것 같기도 했지만, 책을 재미나게 읽은 친구들은 흥미롭고 열띤 토론을 하였다. 그래도 그런 친구, 이런 친구들이 어울려 『오래된 미래』의 토론은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난 늘 토론에 열심히 참여해 오고 책도 잘 읽구 했었지만, 이번처럼 귀기울여 열중한 건 처음인 것 같다. 아마 서기를 했기 때문이리라.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나도 그렇지만 친구들도 아직 철학 토론 수업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 조리있게 말하지 못하면 바로 맞받아치는 친구들의 반격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점이 우리를 무섭게도 하고 재미있게도 해주는 것 같다.

2149 한**
이 책은 지금까지 토론했던 책들과는 달리 기행문이라서 특이했다. 원래 소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는 요번 책이 너무 맘에 들었다. 라다크라는 마을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개발 후 변하는 라다크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책을 재미있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토론할 때는 생각도 정리 안되고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책만 뒤적이다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한 것 같아 아쉽다. 1학기 때는 토론할 때 말도 잘 안나오고 소극적이었는데, 2학기가 되면서 점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날 보면서 정말 뿌듯했다. 처음에는 철학시간이 무섭고 수요일만 되면 두려웠는데 요즘은 은근히 요번 토론은 어떨까 기대도 된다. 이제 3학년에 올라가면 다시는 이런 토론할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슬프다…….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지만, 토론의 결실은 모두에게 각자의 것으로 정리되고 무언가를 배움의 알곡으로 챙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교사의 리뷰

학생들이 『오래된 미래』를 통해 경험하고 고민한 문명 발전의 방향은 인간이 어떤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지점과 맞닿아 있다. 그들은 '진정으로 인

간적인 삶'을 다루는 문제가 우리들을 둘러싼 환경과 인간에 대한 고민을 숙성시키지 않는다면 결코 행복한 개인적 삶을 보장받지 못하리란 점을 깨달았으리라 생각된다. 전시에 토론했던 교재인 『멋진 신세계』가 과학기술 위주의 산업화의 미래라면 이번 토론교재인 『오래된 미래』는 멀지 않았던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라는 점을 분명히 눈치챘을 것이다. 현대 사회는 과학의 열매와 폐기물의 두 측면으로 이루어짐을 스스로 사고할 수만 있었어도 필자는 학생들이 그 어떤 수업보다 큰 반성적 자세를 가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과학자가 되건, 행정가가 되건, 소시민이 되건, 주부가 되건, 자본가가 되건, 농부가 되건 그 어떤 자리에서도 고교시절의 깊은 내적 성찰을 지표로 삼아 삶의 일관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철학교과 내용체계와 성취기준

윤상철 경희여자고등학교 교사

철학교과 내용체계와 성취기준 (1)

Ⅰ. 철학의 출발점: 질문

○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모른다는 사실'이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다. 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할까?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와 언제 죽음이 다가올지 그리고 그 이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이 예측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역시 '모른다'는 사실에서 발생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언제 이런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두려움의 대상이다. 더 쉽게 생각해보자. 학생들이 왜 시험을 두려워할까?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자신의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시험을 두려워한다.

○ 질문은 모든 학문의 출발점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모든 학문은 지적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 과학의 출현 이유를 생각해보자.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했기에 자연 현상의 원인을 알고 싶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언제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지 알고 싶었다. 이것이 과학의 출발점이었다. 과학의 역사와 철학의 역사가 같음은 이러한 지적 호기심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 '질문'은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한 물음'이다.

질문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알고자 하는 바'가 없는 학생들에게서 질문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교사가 질문을 하는 의도도 알 수 있다. 바로 학생들이 알고자 하는 바를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 철학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당연하게 생각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만들어 학생들이 '낯설음'을 느껴 지적 호기심이 유발되도록 수업을 구성하여야 한다.

Ⅱ. 철학교육의 목표와 효과

○ 철학교육의 목표와 효과와 관련하여 하버드대학의 자유교육 이념이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다.

> "하버드 교육은 자유교육이다. 자유교육이란 시국적, 지엽적 주제의 타당성이나 직업적 유용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유로운 탐구정신으로 실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자유교육은 인간과 자연세계에 관한 인식을 증대시켜 학생들의 신념과 선택에 대해서 보다 성찰적이게 하며, 그들의 전제와 동기부

여에 관해서 보다 비판적이게 하며, 문제해결에 있어 보다 창의적이고 외부 세계에 관해 보다 통찰력 있게 하며, 그들의 생활에 개인적, 직업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쟁점들에 대해서 스스로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인지할 수 있게 한다.

자유교육의 목적은 추정을 뒤흔들어 놓고,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만들고, 현상의 저변과 이면에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규명하고, 때로는 방향감각을 흔들어 그들이 스스로 방향감각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자유교육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설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자기성찰을 유발시켜 비판적이며 분석적인 사고를 가르치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역사적 계기와 문화적 형성과의 만남을 통해 소외감을 경험하게 한다.[7)]

○ 철학교육의 목표[8)] : 고등학교 철학 교육은 고등학생이 청소년으로서 자기 삶을 성찰하고 학생으로서 교과 지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삶과 교과의 문제들을 철학적으로 파악하고 탐구하도록 한다. 또한 논증과 토론 등의 의사소통 방법을 통하여 합당한 근거와 보편적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자기 주장을 정립할 수 있는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타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이러한 총괄목표 아래 세부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 지식과 관련된 문제를 쟁점으로 정립하고, 그 쟁점들이 실제 삶의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판단한다.

둘째, 쟁점에 대한 비판적·창의적 탐구 능력을 기른다. 이런 탐구 능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 쟁점의 내용과 쟁점과 관련된 주장을 이해한다.
- 이해된 내용을 '주장-근거'의 형식으로 재구성한다.
- 쟁점을 그와 관련된 사태에 맞게 맥락화한다.
- 끊임없는 비판을 통해 대안을 재검토한다.
- 위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개념화하여 정리한다.

셋째, 논증적으로 정리된 결과를 자신의 의견으로 표명하고 그 의견을 논술로 기술하며 타인들과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체득한다.

○ 철학교육의 효과[9)] :

"철학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일상생활의 사고방식에서 물러나서, 자신의 사고 내용에 토대를 이루는 더 깊고 더욱 큰 물음을 탐구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감

7) Harvard University. 2007.2. "Report of the Task Force on General Education"
8) 교육부, 「고등학교 교양교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9]), 4쪽.
9) 클레어 손더스 외, 『철학은 이렇게 공부한다』, 서광사 2010. 27~28쪽.

춰진 연관관계와 결함 있는 추론을 확인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자신의 사고 내용과 이론이 실수, 비약, 부정합성을 갖지 않도록 발전시키게 된다. 이는 인류의 지식 발전에 커다란 기여이다. 또한 그 자체로 결정적인 생존 기술이다. 〈중략〉 "철학의 심장부는 사유 양식이다." 철학 공부의 초점은 믿고자 하는 내용을 배우는 일이 아니라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는 철학 공부의 독특한 강점이자 핵심 장점이다.

철학을 공부하게 되면 분석 능력이 향상되며, 이런 능력 덕분에 어떤 입장이 되었든 그것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설득력 있는(cogent) 논증을 스스로 구성하고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갈고닦아 준다. 여러 분과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도록 해주며,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문제에 관해 유연하고 창조적으로 생각하도록 돕니다. 철학은 하나의 지식 체계에 그치지 않는 활동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고하고 일하는 능력을 발전시킨다."

Ⅲ. 철학교과 교육과정: 자아론

1. 교육과정: 일반화된 지식과 성취기준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성취기준
자아론	나의 공부	• 나에게 학교 공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배움과 사귐은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가? • 배움이 인간에게 주는 능력은 무엇인가?	[12철학01-01] '고등학생이면서 청소년인 나'의 일상적 삶과 공부의 현실에서 철학적 문제들을 발견함으로써 근본적 문제와 마주하는 경험을 체득한다.
	나의 삶	• 지금의 나는 혼자만의 힘으로 되었는가? •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는가?	[12철학01-02]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의 조건 속에서 청소년으로서 '나의 삶'의 방해 조건과 자유의 조건을 성찰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될 방안을 모색해 본다.
	철학하는 삶	• 철학은 자유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 자유로운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 • 삶의 한계상황이란 무엇인가?	[12철학01-03] 삶의 한계 상황에서 '철학함'을 통해 자기가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을 통찰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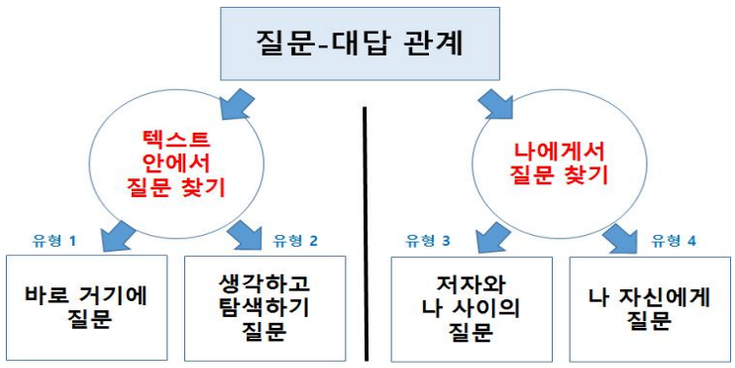
○ 다룰 수 있는 주제들
- 질문(지적 호기심)은 왜 중요한가?
- 고대 그리스 철학의 출발
- 춘추전국시대와 제자백가의 등장
- 나는 누구인가? : 자아정체성 문제
-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동일한 사람인가? : 자아동일성 문제
- 경쟁과 협력, 무엇이 우선인가?
-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라는 점에서 집단 따돌림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 수업 사례: 질문 생성 방법 익히기

○ 라파엘(Raphael)의 '질문-대답 관계(QAR: Question Answer Relation)'[10]는 텍스트를 분석하고 질문을 생성하는데 활용하면 효과가 크다.

○ QAR은 텍스트에서 다음 네 가지 유형의 질문을 생성하도록 권하고 있다.

10) Raphael, Teaching Question Answer Relationships, revisited, The Reading Teacher, 1986, 516-522



1) [유형 1] '바로 거기에' 질문

답이 텍스트의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어서 글의 구조를 따지지 않더라도 답할 수 있는 질문
예) 사람, 장소, 대상, 사건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사실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 (육하원칙에 다른 질문)
예) 글의 핵심어, 낱말과 구의 의미를 묻는 질문

2) [유형 2] '생각하고 탐색하기' 질문

답이 텍스트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텍스트의 여러 부분들을 결합해야 답할 수 있는 질문
예) 저자가 말하려하는 바, 즉 주장을 묻는 질문
예) 주장/설명에 대한 근거/이유를 묻는 질문
예) 이 글은 무엇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가?
예) 이 글을 요약한다면?

3) [유형 3] '저자와 나 사이의' 질문

- 나의 선행지식/경험과 텍스트 안의 근거를 함께 활용해야 답할 수 있는 유형의 질문
- 추론적 사고를 통해서만 답할 수 있으며 답이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아 행간을 읽어야 답할 수 있는 유형의 질문
예) 이 근거로부터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을까?
예) 이 근거들은 실제로 참일까?
예) 왜 저자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을까?

4) [유형 4] '나 자신에게' 질문

- 텍스트를 읽지 않았더라도 답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사용해야만 답할 수 있는 유형의 질문
- <유형 3>과 마찬가지로 추론적 사고를 통해서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예) 왜 ~한 것이 문제가 될까?
예) ~한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의견 또는 나의 대안/해결책은 무엇인가?
예) 나와 ~한 문제/상황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 다음 글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보자.

수오재, 즉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라고 생각했다. … 어느 날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밭과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 그러나 유독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간다. … 그런데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거기에 질문	
생각하고 탐색하기 질문	
저자와 나 사이의 질문	
나 자신에게 질문	

3. 수업 사례: 『EBS 수능특강 독서』를 활용[11)]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오늘 강을 건널 때 그 강에 있는 물방울이 어제 강을 건널 때 있던 물방울과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강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 물방울이 같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왜 '같은 강'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 어제 건넌 강과 오늘 건넌 강은 어떻게 묘사되느냐에서만 다르지 강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지 않은가?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강물은 물론이고, 동일한 물방울이 차 있다고 생각되는 연못도 시간이 지나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면, 변하는 사물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물, 즉 사물에 나타나는 변화에 앞서 계속 존재하는 사물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속적인 순간의 상태에 관해서만 말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가령 책상이라고 부르는 것의 연속적인 순간의 상태, 곧 A 상태의 책상이 있고, 잠시 후 B 상태의 책상이 있으며, 또 다른 상태의 책상이 계속 이어지며, 이것들의 어느 두 책상도 결코 똑같지 않다고 말이다.

11) EBS, "2021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2020년, 65쪽.

그렇다면 우리는 연속적인 변화의 상태 각각을 가리키기 위해 일일이 다른 낱말을 사용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많은 상태를 가리킬 낱말은 무한히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개별적 사물 하나하나에 다른 낱말을 사용하지 않고 유사점에 의해 분류된 사물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한다. 어제의 한강, 오늘의 한강을 가리키는 낱말 대신 '한강'이라는 낱말을 사용하고, 여우 한 마리, 한 마리를 가리키는 낱말 대신 '여우'라는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사람의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적 사물, 곧 개인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를 사용한다. 하지만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하나하나가 다르다는 데 주목하지 않고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할 경우 '동일시의 오류'라고 부르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몇몇의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내 맘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또 미국 사람이야?'라고 말하면서 다른 미국 사람도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이에 해당한다. 여우나 미국 사람 모두 하나하나가 '개별적 사물'이다. 만일 각각의 개별적 사물에 다른 낱말을 사용하거나 개별적 사물의 특성에 주목한다면 모든 개별적 사물을 하나의 관념 꾸러미 속에 몰아넣지 않을 것이며, 모든 개별적 사물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상태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의 언어가 간과하고 우리가 동일시의 오류를 범하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려고 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보기에 언어는 세계를 다루는 불완전한 방식이다.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기 마련인데, 세상도 그러하므로 우리는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이 필요하다. 그것은 꼭 언어의 경제성 때문만은 아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두 사물은 없겠지만 그것들은 몇몇 특성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가리키는 데 일반적 낱말이 필요하게 된다. 만일 고유 명사만 있었다면 서울 사람과 미국 사람을 아우르는 '사람'이라는 일반적 용어가 아예 없었을 것이다. 그들 모두 사람이며, '사람'이라는 일반적 용어는 그들이 공통으로 가진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 준다.

Ⅳ. 철학교과 교육과정: 인간론

1. 교육과정: 일반화된 지식과 성취기준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성취기준
인간론	욕망과 이성	• 인간의 존재를 몸이나 마음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 있는가? •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적절한가? • 이성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2철학02-01] 사람됨을 구성하는 몸의 기반 위에서 욕망과 이성 각각의 능력과 둘 사이의 적절한 관계를 설정한다.
	언어와 인간관계	•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 타인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 어떤 경우에 언어가 폭력이 될 수 있는가?	[12철학02-02] 자기의 사고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성찰한다.
	생존과 실존	• 혼자 사는 것만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 타인은 내 삶의 방해물인가, 자기실현의 조건인가? • 죽음은 삶의 끝인가?	[12철학02-03] 내가 산다는 것의 의미는 단지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하나의 자아로 실존하고, 심지어 죽어서도 존재함이 지속되는 과정임을 탐색한다.

○ 다룰 수 있는 주제들

- 이성이란 무엇인가?
- 논리적 사고: 연역과 귀납의 차이점은?
- 비합리적인 것은 항상 나쁜가?
- 욕망의 순기능과 역기능
- 비판적 사고 및 문식성의 의미와 필요성
  - 비판적 사고 연습
  - 통계 문식성 연습
- 거짓말과 가짜 뉴스의 문제
- 리더십 :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리더십
- 죽음이란 무엇인가? : 셸리 케이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장자의 『장자』
  -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 자살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가?
- 낙태를 금지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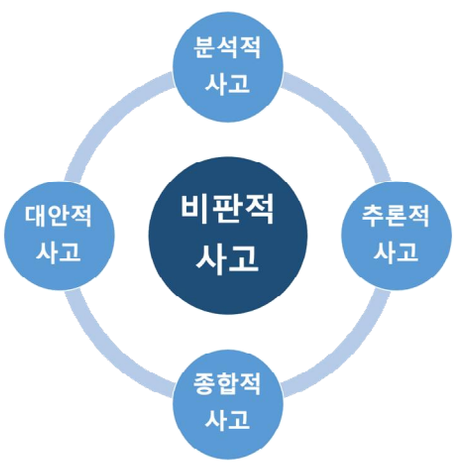
2. 수업 사례: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교육

○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를 일반적으로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 합리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라 정의한다. 비판적 사고를 배우기 전에 비판과 비난의 차이를 살펴봐야 한다. 비판과 비난·비방을 동일한 의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비판(批判) :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making careful judgements)
- 비난(非難) :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함
- 비방(誹謗) : 남을 헐뜯어 말함

○ 비판적 사고는 관찰과 의사소통, 정보 그리고 논증에 대한 숙련되고 능동적인 해석이자 평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는 주어진 텍스트나 정보에 대해 올바른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복합적인 정신적 소양을 포섭하고 있는 개념이다.

○ 비판적 사고의 4가지 유형



- 분석적 사고 : 의미 파악능력, 번역 능력, 해석 능력, 외삽·내삽 능력 등이 포함된 이해력과 이해력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있는 기능으로서, 자료를 그 구성성분으로 분해하고, 그 부분 간의 관계와 그것이 조직되어 있는 방식을 발견해 내는 능력인 분석력을 말한다.
- 추론적 사고(또는 논증적 사고) : 연역 추론 능력과 귀납 추론 능력으로 구성되며, 어떤 주장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주어진 자료로부터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 종합적 사고 : 여러 개의 요소나 부분을 전체로서의 하나가 되도록 묶는 능력이나 다양한 매개변항(parameter)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대안적 사고 : 주어진 사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거나, 시야의 지평을 확대하여 문제에 접근하거나, 더 좋은 대안을 창안해 낼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창의성 개념 중의 '재정의'가 대안적 사고에 해당한다

〈참고〉 비판적 사고의 9요소

비판적 사고의 9요소		
현안	목적	관점
주장(결론)	개념	함축
근거(전제)	정보	맥락

〈참고〉 비판적 사고의 9기준

비판적 사고의 9기준		
분명함	적절성	폭넓음
정확성	중요성	충분함
명료성	논리성	깊이

○ 비판적 사고 연습(분석) 1

소크라테스 : 자네 말은 이런 것이지. 재산, 권력, 건강, 영예 그리고 용기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쓰일 때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

제 자 : 그것도 그렇군요.

소크라테스 : 그렇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유용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쓰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을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제 자 : 아니오, 아무 소용도 없겠지요.

소크라테스 :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사람은 유용한 것을 가지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제 자 :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 : 그러나 그저 사용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 올바른 사용법과 그릇된 사용법이 있을 테니까. 만약 목수가 연장을 잘못 쓴다면 재료를 버리게 되니 쓰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게 아닌가?

제 자 : 그러면 목수가 연장을 올바로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 : 목수가 톱이나 도끼를 올바로 사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악사가 연주를 잘하고, 조각가가 조각을 잘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 자기 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닐까?

제 자 : 바로 그렇군요. 옳은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 : 그렇다면 먼저 말한 재산이라든가 권력, 건강, 영예, 용기 따위도 그것이 있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참된 지식에 의해 올바르게 사용되어야만 선한 것이며, 만약 그것을 무지(無知)가 지배한다면 오히려 나쁘지 않겠는가?

현안	
핵심어와 그 의미	
주장	
근거	

○ 비판적 사고 연습(분석) 2

비록 최선의 정부라 할지라도 최악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그 권력(언론과 사상의 자유의 제한)을 행사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그 권력은 그것이 여론에 따라서 행사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론에 반해서 행사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유해한 것이다. 비록 한사람을 제외한 전(全)인류가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 단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의 부조리함은 그 단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의 부조리함과 아무런 차이도 없다. 어떤 의견이 그 의견의 소유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개인적 소유물이라고 가정하고, 지금 그 의견의 보전이 방해를 받는다는 것이 단순한 사적 침해라고 한다면, 그 의견 보전에 대한 방해는 사적 침해가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것이냐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냐 하는 문제로서 끝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의견의 발표를 침묵시키는 경우 그에 특유한 해악은 그것이 전인류 즉 현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세의 사람들도, 또한 그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모두 강탈당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만일 그 의견이 옳은 것이라면, 인류는 오류를 진리와 바꿀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또 비록 그것이 오류라고 하더라도 인류는 거의 위의 것과 같은 정도로 커다란 이익을 잃게 되는 것으로서 그 이익이란 진리가 오류와 충돌함으로써 이룩되는 진리에 관한 한층 더 명확한 이해와 한층 더 생생한 인상인 것이다.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

현안	
핵심어와 그 의미	
주장	
근거	

⬇

요약문	

3. 수업 사례: 문식성(Literacy) 교육

○ 문식성이란 글을 배워 알고 더 나아가 이를 활용하여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분석 · 평가 · 소통하며 개인과 사회의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 노명완 · 이차숙, 『문식성 연구』

○ 문해력은 글의 표면에 나타나 있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미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사회·정치적 이데올로기, 즉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누구의 가치와 신념을 반영하고 있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다.

– 윤준채, 「문해력의 개념과 국내외 연구 경향」

○ 문식성 유형

비디지털 콘텐츠	문학 텍스트	- 소설, 시 등 다양한 문학 장르와 관련된 문식성
	비문학 텍스트	- 논증적·설명적 텍스트와 관련된 문식성 - 신문 기사와 관련된 문식성 - 통계 자료와 관련된 문식성 - 이미지(만화, 사진, 영상 등)와 관련된 문식성
디지털 콘텐츠		- 쌍방향 의사소통 구조를 지닌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문식성 - 인터넷의 여러 사이트와 웹 페이지에 다양한 형태(글자, 이미지, 동영상 등)로 존재하는 다방면(인문, 사회, 자연)의 정보들을 하이퍼링크를 통해 수집 · 적용·종합하는 사고력 및 창의력과 관련된 문식성

○ 통계 문식성(statistic literacy)

– 통계 문식성이란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검증하고 문제 해결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통계자료는 숫자이다 보니 우리에게 엄연하고 명백한 사실로 보인다. 마치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나타내는 듯하며, 관건은 그런 자료를 찾아내는 데 있는 듯싶다. 하지만 '사람'이 통계를 낸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을 계산할지, 어떻게 계산할지, 계산 결과 중 어떤 수치를 우리에게 말해줄지, 그런 수치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어떤 말을 사용하지는 사람이 선택한다. 통계자료는 사실이 아니다. 해석이다.[12)]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강조되는 빅 데이터 시대에서 통계 문식성은 시민에게 필요한 교양이다. 사회에서 접하는 숫자들 예를 들어, 시청률, 사망률, 암 발생률, 경 제성장율, 대선후보 지지율, 내일 비가 올 확률 등의 숫자들은 대부분 통계이다. 일상 속에 서 다양한 분야에서 수없이 쏟아내는 통계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해결에 도움

12) 대니얼 J.레비틴, 『무기화된 거짓말』 (레디세고, 2017) 29쪽.

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한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통계소양이라 함은 한 시민으로써 일상생활 속 숫자들로 나타나는 통계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비판적 평가와 함께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한다.[13)]

13) 김정란, 김응환, '미국의 통계소양교육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교사교육 방향의 탐색',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제20권 제2호, 2017, 163쪽.

철학교과 내용체계와 성취기준(2)

Ⅰ. 철학교과 교육과정: 세계론

1. 교육과정: 일반화된 지식과 성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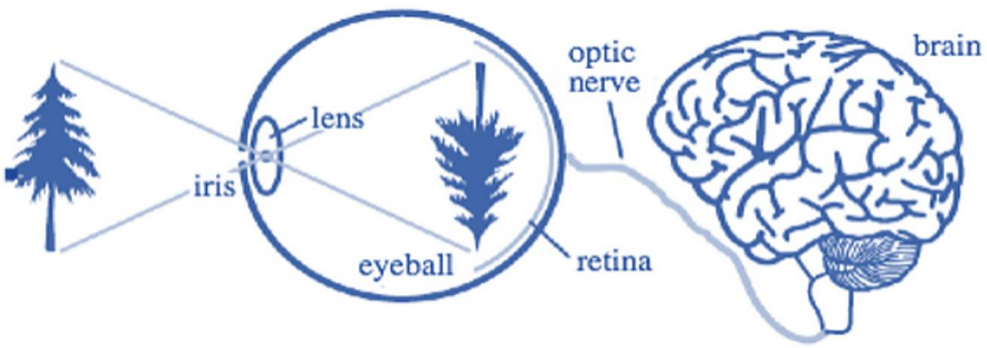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성취기준
세계론	물질과 생명	• 우리는 왜 물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생명은 물질 현상인가 비물질 현상인가? • '나'는 물질인가?	[12철학03-01] 우주, 자연, 생명에 이르는 물질의 다양한 존립 방식과 비물질적 존재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자연과학적 탐구의 기초를 이해한다.
	타자와 사회	• 혼자 사는 것이 더 자유롭지 않은가? • 사회적 규범은 왜 필요한가? •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 사회의 조건은 무엇일까?	[12철학03-02] 타인과의 다양한 공존 관계 속에서 규범의 필요성과 자유의 가능성, 그리고 삶의 한계를 탐구한다.
	시간과 역사	• 과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민족은 무엇이고, 민족의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나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12철학03-03] 과거는 지나간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러한 역사의 규정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자기 이해와 자기실현의 기반이 됨을 성찰한다.

○ 다룰 수 있는 주제들

- 육체와 정신의 관계
  -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 AI와 인간의 관계
- 인간과 환경
  - 인간중심주의, 종차별주의
  - 생태계와 환경윤리
- 규범이 필요한 이유는?
  - 사회계약론 : 홉스, 로크, 루소
  - 시민 불복종을 허용해야 하는가?
-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 민주주의의 근간 : 자유주의, 개인주의, 다원주의
- 역사란 무엇인가? :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 역사적 실증주의와 역사적 현재주의
  - 역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가?
- 해석과 사실의 차이점

2. 수업 사례: 나의 밖에 외부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외부대상(external object)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표상(represent)해주는 관념(idea)에 의해서만 간접적으로 알려질 뿐이라고 보았던 근대 인식론에서 관념이 표상하는 대상, 즉 실재(reality)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다시 말해 관념이 표상하는 대상이 무엇이며, 그 대상은 관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 등의 문제는 근대철학자들 모두가 넘어야만 할 과제였다.



(1) 사진 자료를 활용: 누가 본 세상이 진짜 세상일까?

일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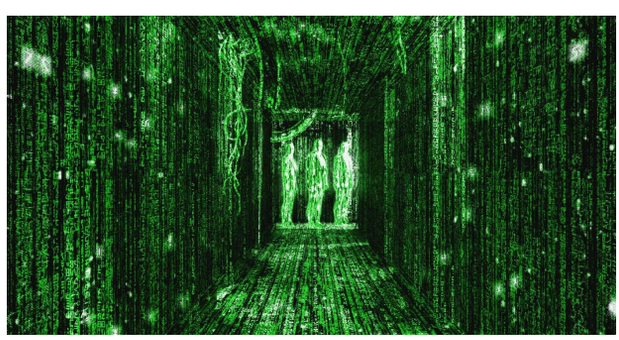
적외선 사진

일반 사진

자외선 사진

(2) 영화 '매트릭스'를 활용

○ 영화 설명: 인간에 의해 감지되는 현실이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가상현실에서, 인체의 열과 전기 활동을 자신의 생명 연장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컴퓨터(sentient machines)가 인류를 지배하는 디스토피아 적 미래를 묘사한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네오(Neo)는 이러한 진실을 알게 되고, "꿈의 세계(dream world)"에서 벗어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계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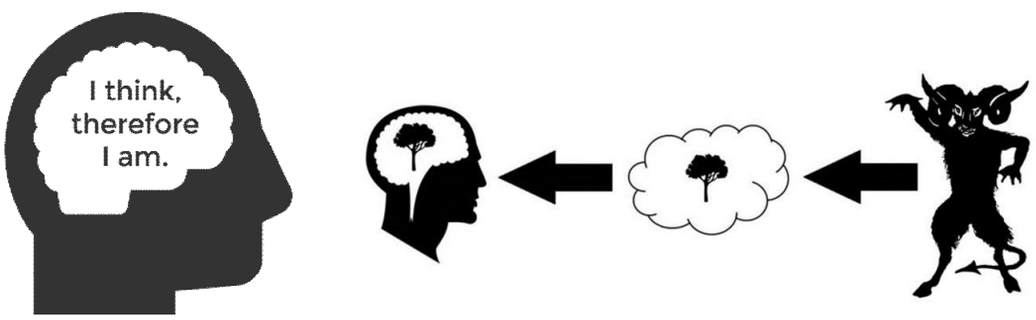
(3) 텍스트 분석 1: 『EBS 수능특강 독서』를 활용[14)]

우리가 지각하는 외부 대상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이 의심은 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도 평소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14) EBS, "2021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2020년, 43~44쪽.

것이다. 내가 앉아 있는 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내가 보고 있는 컴퓨터 스크린이 내가 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지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은 왜 이러한 의심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일까?

데카르트와 칸트가 이 의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 살펴보면, 이 의심으로부터 어떠한 철학적 성찰들이 전개될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먼저 데카르트의 경우를 살펴보자. 데카르트가 외부 대상의 실재성을 의심하는 이유는 가장 확실하고 의심할 수 없는 철학의 토대를 찾기 위해서이다. 그의 저서 『형이상학적 성찰』은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의심을 통해 역으로 더 이상 의심 불가능한 확실한 명제를 발견하고자 하는 회의(懷疑)의 방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데카르트는 외부 대상이 우리가 지각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에서부터 출발하여 가장 확실해 보이는 수학적 진리까지도 틀린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想定)한다.



데카르트는 꿈꾸는 상황을 가정하여 우리의 지각을 의심하고 외부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나는 내가 지금 눈앞의 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중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평상시에 이런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지만, 현실처럼 생생했던 꿈에서 깨어나 그것이 꿈이었음에 안도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확률은 희박하지만 우리가 꿈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꿈속의 상황일 수도 있다. 우리는 다리를 건너면서 다리가 당장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희박한 확률이라 할지라도 다리가 무너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이처럼 지극히 낮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완전히 배제해 버릴 수는 없어 보이는 의심 가능성이다.

하지만 데카르트가 외부 대상의 실재성을 부정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외부 대상의 존재를 비롯해서 우리가 조금의 의심도 없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지식이나 명제들에 대해서 과연 그것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수단으로 터무니없어 보이는 의심을 사용했다. 앞서 들었던 다리의 예를 보자면, 데카르트는 다리가 당장 무너질 것이라는 개연성 낮은 의심을 통해 다리의 안전성을 어느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무지에 대한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한 것이다.

데카르트와 달리 칸트는 외부 대상의 실재성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는 것을 철학적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칸트의 입장은 개연성 낮은 철학적 의심을 수용했던 데카르트와는 전혀 다르다. 칸트는 외부대상이 우리가 지각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모순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입장은 우리는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다고 가정하는 동시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외부 대상의 본모습을 알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다고 말하려면, 우리가 지각하는 외부 대상의 모습과 우리의 지각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외부 대상의 본 모습을 모두 알고 이를 비교해서 양자의 차이를 말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칸트의 입장은 우리는 외부 대상이 우리에게 지각되는 대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칸트는 외부 대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 얻은 인식이 근본적으로 틀릴 가능성이 아니라 틀릴지 맞을지 확인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만 외부 대상을 알 수 있다. 칸트는 이렇게 우리 인식을 제한함으로써 데카르트식의 의심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지식으로 수용한다. 그리고 그 지식의 본질적인 구조와 성격을 탐색하는 일이 바로 철학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결국 칸트는 외부 대상의 실재성에 대해 의심하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인간의 지식을 그 자체로 수용하고 그 가능 조건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4) 텍스트 분석 2: 『EBS 수능특강 독서』를 활용[15)]

로크는 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하는 빛깔, 냄새 등의 주관적 성질을 "제2성질"이라고 하고, 주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끼는 물리적인 연장, 고체성, 운동 등의 객관적 성질을 "제1성질"이라고 한다. 제2성질이 경험 안에 있다면, 제1성질은 물체 자체에 속하는 성질이다. 진리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제1성질 때문이다. 제1성질이 동일하게 경험되는 이유는 사물들이 그런 성질을 타고났기 때문인데, 이는 일종의 "본유성질"이다. 로크의 제1성질은 실재하는 것이며, 이 실재의 대상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경험가능성에 놓인다는 점에서 이전의 관념적 실재론과 달리 경험적 · 유물론적이다. 이러한 태도는 근대과학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1성질이 유독 물질 그 자체에 속하는 객관적 성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비판들이 이후 제기된다. 버클리는 경험되지 않는 성질이란 알 수 없는 성질이고, 알 수 없는 성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제1성질의 객관성을 비판한다. 근대과학에 의해서도 경험적 실재인 제1성질은 심리적 착각이나 경험적 추상의 소산으로 비판받는다.

칸트는 경험적 대상인 "제1성질"을 포함한 경험적 인식의 대상을 모두 "현상"이라 정의하고, 인식가능성을 초월한 "물자체"(Ding an sich)를 상정한다. 우리는 감각 기관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데 여기에서는 필연적으로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상뿐이며, 사물자체를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칸트는 본다. 칸트에게 실재는 물자체이지만, 그것을 인식가능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대신 현상을 파악하는 우리의 인식체계를 문제 삼음으로써 진리의 문제설정을 바꾼다. 즉, 진리를 대상에서 찾는다면 인식 불가능한 실재인 "물자체"에 대해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으므로 진리를 얻을 수 없으며, "현상"을 우리의 감각 기관은 끊임없는 왜곡으로 받아들이므로 마찬가지로 진리를 얻을 수 없지만, 진리를 주관(주체)의 판단형식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현상을 파악하는 우리의 인식을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칸트는 스스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지칭한다. 칸트의 물자체는 이후 다양한 실재론의 입장들을 야기한다.

15) EBS, “2021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2020년, 43~44쪽.

(4) 철학적 딜레마를 활용: '통 속의 뇌((Brain in a vat)'

○ 어떤 사람이 사악한 과학자에 의해 수술을 받았다. 그 사람의 뇌는 육체에서 분리되어 뇌를 계속 살아 움직이게끔 해줄 영양분이 가득 담긴 통 속에 옮겨졌다. 신경조직은 그대로 초과학적 컴퓨터에 연결되어 이 컴퓨터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이 완벽히 정상적인 듯이 보이는 환각을 일으키도록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 사물들, 하늘 등은 모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컴퓨터로부터 신경세포에로 이어지는 전기 자극의 결과이다. 그 사람이 손을 올리려 한다면 손의 움직임이 자동적으로 '보이고', '느끼게' 되도록 컴퓨터는 교묘히 장치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그 사악한 과학자는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변형시킴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과학자가 원하는 어떠한 상황이나 상태일지라도 '경험'하도록 할 수 있다. 과학자는 또한 뇌수술을 하였다는 기억을 삭제해 버림으로써 그 사람이 항상 그러한 상황에 있어온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다.[16]

1) 우리는 외부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2) 우리에게 주어진 감각을 통해서 외부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인데 그런 추측들은 옳은가?
3)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무엇인가?
4) 외부세계가 정말로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감각적 경험의 원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컴퓨터가 그 감각을 만들어냈는지 알 수 있는가?

○ **[참고: 莊周之夢]** 어느 날 장주가 나비가 되는 된 꿈을 꾸었다.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 유유자적 재미있게 지내면서도 자신이 장주임을 알지 못했다. 문득 깨어 보니 다시 장주가 되었다. 장주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는지, 나비가 장주가 되는 꿈을 꾸었는지 알 수가 없다. 장주와 나비 사이에 무슨 구별이 있기는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일러 '사물의 변화[物化]'라 한다.[17]

16) Putnam, *Reason, Truth, and History*, Havard: Cambridge Univ. Press, 1981, pp.5-6.
17) 장자, "장자", 현암사, 2002, 134쪽

Ⅱ. 철학교과 교육과정: 가치론

1. 교육과정: 일반화된 지식과 성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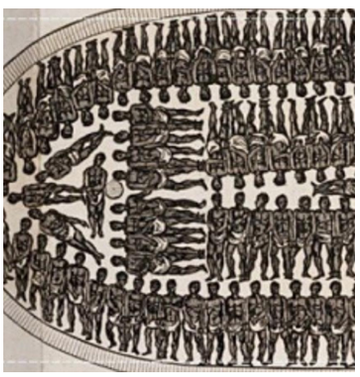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성취기준
가치론	존엄성과 인권	• 특별한 역할이나 소임이 없는 인간이라도 왜 살려야 하는가? • 인권을 무시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의 신념이나 관습은 어느 정도 존중해야 하는가?	[12철학04-01] 한 인간의 사회적 효용성이나 문화적 차이와 상관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성을 가지고 인권을 누려야 하는 근거를 탐색하고 체득한다.
	옳음	• 옳지 않은 규칙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진정한 평화는 어떤 상태인가? • '정의 없는 평화'나 '평화 없는 정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12철학04-02] 인간의 삶이 살아가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왜 올바른 규범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고찰하면서 인간의 만남을 올바르게 조직하는 방안을 구상한다.
	좋음과 아름다움	• 좋은 삶은 무엇인가? • 우리는 왜 아름답지 않은 것보다 아름다운 것을 더 좋아하는가? • 내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2철학04-03] 좋은 삶이란 무엇이며, 좋은 삶을 만드는 아름다움의 근원과 그에 대한 체험이 어떻게 행복으로 연결되는지 이해한다.

○ 다룰 수 있는 주제들

- 도덕적 딜레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 인권이란 무엇인가?
- 우리의 경계는 어디인가? : 배타성
- 다양성 존중 : 문화의 다양성과 생물의 다양성을 왜 존중해야 하는가?
-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 분노는 필요한가?
- 정의로움이란 무엇인가? : 분배의 정의를 중심으로
  – 아리스토텔레스, 공리주의, 존 롤스, 로버트 노직의 정의론
- 평화란 무엇인가? :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 아름다움이라 무엇인가?
- 예술의 가치는 주관적인가 객관적인가?
- 행복이란 무엇인가?

2. 수업 사례: 인권 – 인권선언문의 한계

○ 다음 그림들은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잡아 노예로 쓰기 위해 유럽이나 미국으로 태워갈 때의 모습이다. 사람들을 마치 짐처럼 취급했다.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된다는 것,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에는 삶, 자유 및 행복의 추구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자명한 진리로 믿는다.

→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은 1863년 링컨의 노예해방 선언 이후이며,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된 것은 1920년이다. 그리고 1870년대에 만들어 대중교통, 학교, 공원, 공동묘지, 극장, 식당 등의 공공장소, 식수대에서 흑백인종 분리정책을 정당화한 '짐 크로우법(Jim Crow Laws)'은 1965년에 폐기되었다.

<1789년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 등이다.

→ 프랑스에서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1848년이고, 여성의 참정권이 법률로 보장된 것은 1946년이다.

○ 인류(또는 인권)의 역사는 '사람'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사람' 개념의 외연 확장이란 사회에서 '평등'이라는 원리 아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회 구성원의 비율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3. 수업 사례: 도덕적 딜레마를 활용한 수업

〈상황 1〉

기차가 운행 중 이상이 생겨 제어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선로에 서 있는 5명이 죽고 맙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반이 전철기의 옆에 있고, 전철기를 돌리면 기차를 다른 선로로 보냄으로써 5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른 선로에 1명이 있어서 그 사람이 죽고 맙니다. 어느 쪽도 대피할 시간은 없습니다. 이때 도덕적 관점에서 A가 전철기를 돌리는 것이 허용됩니까?

〈상황 2〉

〈상황 1〉과 동일하게 폭주중인 기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앞에는 5명이 있고 달아날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A가 다리 위에 있습니다. 뭔가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려 기차를 탈선시키면 5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의 근처에 있는 무거운 물체라고는 뚱뚱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도덕적 관점에서 A가 그 뚱뚱한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는 것이 허용됩니까?

4. 수업 사례: 예술론 – 『EBS 수능특강 독서』를 활용[18)]

예술은 어떤 활동인가? 여러 철학자들과 예술 이론가들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 노력해 왔고, 그중 하나가 이른바 '모방론'이다. 모방론은 예술이 결국 자연을 모방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는 이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나은 점은 바로 모방을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모방적인 동물이며, 모방에 의해 처음으로 배우게 된다.'라며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술이 형상에 대한 모방을 통해 있을 수 있는 세계를 표현함으로써 개연성을 지니며 시대를 아우르는 보편성을 획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후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 모방론은 서양에서 예술을 규정하는 이론으로 오랫동안 독보적인 위치를 점해 왔다. 하지만 근대에 이르러 헤겔은 자신의 저서인 『미학 강의』에서 모방론이 예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며, 모방론을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하였다.

첫째, 헤겔은 예술이 외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모사(模寫)하려 하더라도, 표현 수단의 한계로 인해 모사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는 예술이 아무리 높은 완성도를 지닌다 해도 개별적이고 특수한 표현 수단을 통해 원본인 자연을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애초부터 없다고 생각하였다. 예술을 자연에 대한 완벽한 모방으로 생각한다면 예술이 속임수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예술 활동 역시 불필요한 수고가 되거나 일시적이고 헛된 유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헤겔은 모방이 기술적 숙련성을 얻기 위한 방편일 뿐 자유로운 정신 활동인 예술 행위 자체는 아니라고 ⓐ 보았다. 그는 인간은 모방보다는 스스로 만들어 낸 것에 대해 더 큰 기쁨을 갖는다고 보고, '인간은 흉내 내는 재주를 완성하는 것보다 망치와 못 등을 발명하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였다.

둘째, 헤겔은 예술을 단지 모방으로 규정한다면 대상의 외형에 대한 정확한 모사가 중시되어 모방 대상 자체에 대한 본질적 고려가 간과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경우 미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본질적 고려가 사라질 수 있어 모방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나, 대상이 지니는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논의가 예술과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헤겔은 이렇게 예술이 무엇을 표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생략한 채 예술의 과제가 임의적으로 선택된 대상을 정확히 모방하는 일에 그친다면, 예술은 흥미를 유발하는 유희 정도에 머무를 뿐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예술을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표현해 내는 문화적 형식이자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류의 정신적 자산으로 보았으며, 그렇기에 예술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셋째, 헤겔은 모방론의 타당성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화나 조각처럼 자연을 모델로 삼는 예술 분야도 있

18) EBS, "2021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2020년, 75~76쪽.

을 수 있지만,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관점으로 온전히 이해될 수 없는 예술 분야도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모방의 원리를 건축이나 문학에 적용하려 하면 여러 조건이 붙어 그 원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헤겔은 이러한 경우 여러 조건을 붙여 모방의 원리를 적용하더라도 건축에 드러난 숭고함이나 문학 작품에 드러난 고통, 슬픔 등과 같은 심리적 상태는 그 원형을 찾기 어렵고 따라서 그것을 모방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면의 감정이나 사상처럼 모방의 원리로 설명되지 않는 요소들을 표현한 작품들도 예술에서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헤겔은 예술이 세계의 참된 아름다움과 인간이 중시하는 정신적 가치들을 감각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고 보았기에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예술을 모방이라는 하나의 원리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름다움이 본질적으로 외적인 형상으로부터 탄생한 자연미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으로부터 탄생한 예술미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연도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외형적 모방이 의미 없는 것만은 아니지만, 자연에 대한 모방만으로는 예술의 본질을 형성하는 정신을 완전히 표현할 수는 없기에 정신의 표현은 모방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받게 된다는 것이다. 근대 이후 인간의 주관, 창조적 능력과 개성적 표현이 예술적 자유로 점점 더 강조되고, 상상력의 발휘가 예술의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되면서 예술을 단순히 자연의 모방으로 규정하는 이론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예술을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표현하는 활동으로 생각하고, 예술가들의 예술적 자유를 중시한 헤겔의 입장이 현대에도 설득력을 지닌다는 점은 그의 이론이 지닌 가치를 보여 준다.

〈참고자료 1〉 토론 개요서 작성

※ 논제와 관련하여 토론 개요서를 작성하시오.

논제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		
용어 정의			
쟁점	• • •		
쟁점		긍정측	부정측
쟁점1	주장		
	근거		
	자료		
쟁점2	주장		
	근거		
	자료		
쟁점3	주장		
	근거		
	자료		

〈참고자료 2〉 협력적 글쓰기

1. 개요

○ 글쓰기 유형: 논증적 글쓰기
○ 목 표: 근거 중심의 쓰기 능력 함양
○ 글쓰기 주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 진행 과정: 수업의 방향과 주제에 맞추어 제시된 [활동]을 재구성할 수 있음

발견하기 (개인)	[활동 1-1] (텍스트 분석) 하인츠의 행위와 목적을 정리하기 [활동 1-2] 하인츠의 행위에 대한 나의 주장과 근거 정리
생각 키우기 (개인 & 협력)	[활동 2-1] 하인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 토론 [활동 2-1] 토론에서 제시된 근거 및 질문 정리 [활동 2-2] 추가 자료 분석 및 활용 방안 모색 [활동 2-3] 일반화된 질문 생성
생각쓰기 (개인)	[활동 3] [활동 2-1]과 [활동 2-2]를 활용하여 [활동 2-3]에서 만든 질문에 답하는 글쓰기
공유하기 (협력)	[활동 4-1] [활동 3]에서 작성한 글을 돌려 읽고 상호첨삭하기 [활동 4-2] [활동 3]에서 작성한 글을 [활동 4-1]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하기

○ 연관 교육과정 또는 수업 운영시 유의사항 등

형식	[9국03-04] 주장하는 내용에 맞게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을 쓴다.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10국03-02] 주제·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12화작02-03] 상대측 입론과 반론의 논리적 타당성에 대해 반대 신문하며 토론한다.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내용	[윤사03-06] 의무론과 칸트의 정언명령, 결과론과 공리주의의 특징을 비교하여 각각의 윤리 사상이 갖는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12철학04-02] 인간의 삶이 살아가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왜 올바른 규범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고찰하면서 인간의 만남을 올바르게 조직하는 방안을 구상한다.

2. 활동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한 부인이 희귀한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사는 마을에서 한 약사가 그 암을 치료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약을 개발했다. 약사는 그 약을 만들기 위해 200달러를 투자했으며, 약한 알에 2,000달러의 가격을 책정하였다. 죽어가는 부인의 남편 하인츠 씨는 있는 힘을 다해 돈을 융통하고자 애썼지만, 결국 1,000달러 정도밖에는 모으지 못했다.
>
> 하인츠 씨는 약사를 찾아가서 아내가 죽어가고 있으니 제발 약값을 절반으로 깎아 달라고 애걸했지만, 약사는 이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머지 절반을 갚겠다는 요청까지도 거절하였다. 절망한 하인츠 씨는 결국 그날 밤 약사의 연구실에 침입하여 신약을 훔치게 되었다.

[활동 1-1] (발견하기) 하인츠가 한 행위와 그렇게 한 이유를 정리해 보자.

하인츠의 행위	
하인츠의 목적	

[활동 1-2] (발견하기) 하인츠의 행위에 대한 나의 도덕적 판단을 정리해 보자.

나의 주장	**하인츠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없다.**
나의 근거	▪ ▪ ▪

[활동 2-1] (생각 키우기) 하인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제시된 근거와 질문을 정리해 보자.

나와 동일한 주장의 근거들	나와 다른 주장의 근거들
• • • •	• • • •

나에게 의미 있는 질문들	• •

[활동 2-2] (생각 키우기) 하인츠의 행위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일반화할 수 있는 질문을 '목적과 수단'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만들어 보자.

[활동 3] (생각 쓰기) [활동 2-3]에서 만든 질문을 제목으로 삼고, [활동 2-1]과 [활동 2-2]를 활용하여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써보자.

제목	
나의 주장	
나의 근거	

글을 쓰며 겪은 어려움	• •

[활동 4-1] (공유하기) 다른 학생의 글을 읽고 상호첨삭 및 평가를 해보자.

○ 〈학생 1〉의 평가 3학년 반 번 이름: _____

평가 요소	**평가 기준**	**평가 내용**	
		긍정적 측면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
논증 구성력	근거가 적절하며 주장을 잘 뒷받침하고 있나요?		
표현력	표현이나 사용한 예시가 적절했나요?		

글쓴이에게 하고 싶은 질문	

[활동 4-2] (공유하기) [활동 4-1]의 평가 내용을 참고하여 [활동 3]에서 작성한 글을 수정 · 보완하고 발표해보자.

[참고 자료]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출처: 김종철 외, 『고등학교 고전』 (천재교육, 2014), 262~266쪽)

<전체 줄거리> 가난한 대학생 라스콜니코프는 비열하고 사악한 전당포 노파를 죽이면 그 재산으로 수백 수천의 가난한 사라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는 자신이 인간의 법을 초월하는 위대한 '초인(超人)'임을 입증하기 위해 도끼로 노파를 죽이고, 우연히 범죄 현장에 들른 노파의 여동생까지 살해한다. 목격자도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그를 범인으로 지목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살인 후, 그는 예상치 못한 고통과 고독으로 괴로워한다. 또한 예심판사 포르피리는 심증으로 그를 의심하고 그에게 자백을 종용한다. 우연히 알게 된 매춘부 소냐도 그에게 영혼의 부활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는 결국 죄를 고백하여 시베리아 유형 길에 오르게 되고, 그곳에서 참다운 구원의 빛을 찾게 된다. 본문에 제시된 부분은 라스콜리코프가 선술집에서 노파를 살해할 동기를 발견하는 부분이다.

(술집에서 라스콜니코프의 옆자리에 있던 한 대학생이 전당포 노파에 대해 말한다.)

"그 노파한테서는 언제든지 돈을 꿀 수가 있어. 유대인 못지않은 부자라서 단번에 5천 루블도 내줄 수 있는 여자야. 그런데도 1루블짜리 전당물조차 마다하지 않거든. 우리 친구들도 그 노파를 자주 찾아가고 있어. 그런데 무서울 정도로 인색한 여자지……."

그리고 그는 그녀가 얼마나 사악하고 변덕스러운지 말하기 시작했다. 단 하루라도 기한을 어기면 물건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물건 값의 4분의 1밖에 안 빌려 주고, 이자는 한 달에 5부에서 7부까지 받는다는 말이었다. <중략>

"내가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어. 난 그 저주스러운 노파를 죽이고 도둑질을 한다고 해도, 단언하지만 결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아."

열을 내면서 대학생이 덧붙여 말했다.

"잠깐, 내가 심각한 질문을 하나 던져 볼게!"

다시 대학생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물론, 내가 한 말은 농담이었지만, 생각을 해 봐. 한편으로는 어리석고, 의미 없고, 하찮고, 못됐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니 오히려 사람에게 해만 끼치는 그런 병든 노파가 있어. 그 노파는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또 그렇지 않아도 얼마 안 있으면 저절로 죽게 될 거야. 알았어? 알아듣겠어?"

"그래 알았어."

장교는 흥분해 있는 친구를 주의 깊게 보면서 대답했다.

"더 들어봐, 다른 한편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면 좌절하고 말 싱싱한 젊은이가 있단 말이야. 그런 젊은이는 도처에 있어! 그리고 수도원으로 가게 될 노파의 돈으로 이루어지고 고쳐질 수 있는 수백, 수천 가지의 선한 사업과 계획들이 있단 말이야! 어쩌면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수십 가정들이 극빈과 분열, 파멸, 타락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 이 모든 일들이 노파의 돈으로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빼앗은 돈의 도움을 받아 훗날 전 인류와 공공의 사업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노파를 죽이고 돈을 빼앗는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작은 범죄 하나가 수천 가지의 선한 일로 보상될 수는 없는 걸까? 한 사람의 생명 덕분에 수천 명의 삶이 파멸과 분열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고, 한 사람의 죽음과 수백 명의 생명이 교환되는 셈인데, 이건 간단한 계산 아닌가! 그 허약하고 어리석고 사악한 노파의 삶이 사회 전체의 무게에 비해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 그 노파의 삶은 바퀴벌레의 삶보다 더 나을 것이 없고, 어쩌면 그보다 더 못하다고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 노파는 해로운 존재니까. 그 노파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잖아."